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博士學位論文

1人知識서비스組織의 成功要因에 관한  
實證的 研究

2009年



漢城大學校 大學院

行政學科

行政學專攻

高光鍾

博士學位論文  
指導教授 鄭鎮宅

1人知識서비스組織의 成功要因에 관한  
實證的 研究

An Empirical Study on the Factors that Contribute to Making a  
Successful One-Man Knowledge Service Organization

2008년 12월 일

漢城大學校 大學院

行 政 學 科

行 政 學 專 攻

高 光 鍾

博士學位論文  
指導教授 鄭鎮宅

1人知識서비스組織의 成功要因에 관한  
實證的 研究

An Empirical Study on the Factors that Contribute to Making a  
Successful One-Man Knowledge Service Organization

위 論文을 行政學 博士學位 論文으로 제출함

2008년 12월 일

漢城大學校 大學院

行 政 學 科

行 政 學 專 攻

高 光 鍾

高光鍾의 行政學 博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08年 12月 日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 국문초록

# 1인지식서비스조직의 성공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21세기 지역발전은 지역 내에 1인지식서비스조직의 확보가 핵심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서울시의 1인지식서비스조직의 분포 실태를 파악하고 1인지식서비스조직의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고, 1인지식서비스조직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는 데 있다. 분석결과, 1인지식서비스조직과 지역발전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1인지식서비스조직 가운데 1인지식서비스조직 핵심집단이 지역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1인지식서비스조직의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기술적 요인이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보헤미안지수가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용성 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1세기 서울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기술적·문화적 인프라 확보가 필수적이며 지역사회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외국인과 예술가 집단에 대한 개방적 분위기 함양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주제어 : 1인지식서비스조직, 성공요인, 실증적연구

#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
제 2 장 이론적 배경 .....	4
제 1 절 1인지식서비스조직 정의 .....	4
제 2 절 1인지식서비스조직 이론 관련 선행연구 .....	6
1. 1인지식서비스조직 이론 .....	6
2. 지역발전이론 .....	7
3. 조직적 환경 요인과 개인적 환경 요인 .....	10
4. 1인지식서비스조직이론에 대한 비판 .....	12
제 3 절 개인적 차원의 1인지식서비스조직 성공도 관련변수의 선행 연구 .....	18
1. 관용성 지표 .....	18
2. 지역의 질 지표 .....	22
제 4 절 조직적 차원의 1인지식서비스조직 성공도 관련변수의 선행 연구 .....	23
1. 기술지수 .....	24
제 3 장 연구설계 .....	27
제 1 절 연구모형 .....	27
제 2 절 연구가설의 설정 .....	28
1. 1인지식서비스조직 성공과 개인적 환경요인에 관련된 가설 .....	28
2. 1인지식서비스조직 성공과 조직적 환경요인에 관련된 가설 .....	29

제 3 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	30
<b>제 4 장 연구결과 .....</b>	<b>32</b>
제 1 절 1인지식서비스조직 분포 관련 연구결과 .....	32
제 2 절 1인지식서비스조직 성공과 개인적 환경요인 관련 연구결과 .....	43
1. 관용성지표 관련 연구결과 .....	43
2. 지역의 질 지표 관련 연구결과 .....	48
제 3 절 1인지식서비스조직 성공과 조직적 환경요인 관련 연구결과 .....	58
제 4 절 연구가설의 검정 결과 .....	63
<b>제 5 장 결 론 .....</b>	<b>66</b>
<b>【참고문헌】 .....</b>	<b>71</b>
부록 1. 서울시 자치구별 1인지식서비스조직분포 현황 .....	78
부록 2. 1인지식서비스조직 코드 .....	104
ABSTRACT .....	113



## 【 표 목 차 】

[표 2-1] 관용관련 선행연구 요약 .....	22
[표 2-2] 기술관련 선행연구 요약 .....	28
[표 3-1] 개인적 환경요인 관련 연구가설 .....	32
[표 3-2] 조직적 환경요인 관련 연구가설 .....	33
[표 4-1] 자치구별 인구분포 .....	36
[표 4-2] 자치구별 1인지식서비스조직 핵심집단 분포 .....	38
[표 4-3] 1인지식서비스조직 핵심 집단 상·하위 5개 자치구 .....	39
[표 4-4] 자치구별 1인지식서비스조직 전문가 계층 분포 .....	40
[표 4-5] 1인지식서비스조직 전문가 집단 상·하위 5개 자치구 .....	40
[표 4-6] 자치구별 외국인 거주현황 .....	41
[표 4-7] 자치구별 1인지식서비스조직 분포 .....	43
[표 4-8] 1인지식서비스조직 상·하위 5개 자치구 .....	43
[표 4-9] 자치구별 인적자원 분포 .....	45
[표 4-10] 자치구별 보헤미안 지수 .....	49
[표 4-11] 자치구별 외국인 지수 .....	50
[표 4-12] 자치구별 공공지수 .....	53
[표 4-13] 자치구별 문화기회지수 .....	55
[표 4-14] 1인지식서비스조직 핵심집단 상관관계분석 .....	57
[표 4-15] 전반적 1인지식서비스조직 회귀분석 .....	59
[표 4-16] 1인지식서비스조직 핵심 집단 회귀분석 .....	62
[표 4-17] 1인지식서비스조직과 고용률 회귀분석 .....	64
[표 4-18] 1인지식서비스조직과 소득수준 회귀분석 .....	66

## 【 그림 목 차 】

<그림 2-1> 3T모형 .....	11
<그림 3-1> 1인지식서비스조직 성공도 관련 연구모형 .....	31
<그림 4-1> 연구가설의 검정 결과 .....	69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목적

Peter Drucker에 따르면 1인지식서비스조직이란 "일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 개발. 혁신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인재를 일컬으며 "사회 시스템의 생산성을 극대화시키고 고객을 만족시키는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지식이 창출. 확산. 응용될 수 있는 조직형태"를 말한다.

핀란드와 일본을 비롯한 대다수의 OECD 서방국가들은 2000년대부터 1인 지식서비스조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5년부터 핀란드에서 서비스혁신기술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국가전략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홍콩에서는 홍콩 재무장관 주도로 '95년 공식 작업반을 출범 '97.3월 14개 유망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서비스산업 지원 8개방안'을 마련, 추진 중이고 일본에서는 헬스케어(의료·복지), 집객교류(관광), 콘텐츠(문화), 비즈니스서비스, 환경 등 5개 분야를 '신산업창조 전략분야'로 선정, 집중 육성하고 있다 이외에도 OECD 국가들의 지식서비스산업 정책방향 필두로 세계 각국은 다양한 형태의 1인 지식서비스조직 인재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1인지식서비스조직 인재 육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부처 가운데 지식경제부가 인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장 먼저 지식서비스산업의 육성과 발전 정책을 전담할 지식서비스팀 신설하였고 문화관광부는 한류의 지속 확산 지원, 문화·방송 및 관광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재정경제부는 정부의 서비스산업 육성대책 등 서비스업 육성정책 총괄하고 있고 창조산업을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1인지식서비스조직의 급속한 확산 필요성과 국내외 학자들의 많은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지식서비스 산업에 관련된 논의의 대부분은 바람직한 1인지식서비스조직의 모습에 대한 규범적 당위성을 제시하거나 실험적 수

준에서 개인이나 조직의 상황을 일회성 사례 연구를 통해 피상적으로 기술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경험적 자료에 근거한 실증주의적 접근방법에 의한 연구는 전무하여 지식서비스산업 활성화에 대한 연구기반은 상당히 취약하며 각 관련 실무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여 새롭고 실증주의적인 접근방법을 통해 1인지식서비스조직 실증사례를 바탕으로 1인지식서비스조직의 실태를 파악하고 1인지식서비스조직의 분포를 분석하여 글로벌 환경에서 경쟁력을 갖는 1인지식서비스조직 활성화를 위한 이해의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Richard Florida의 창조성계층 이론을 기반으로 서울시의 1인지식서비스조직의 분포가 지역발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고 Richard Florida의 창조성 계층이론이 서울시에도 적용되는지를 알아보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Richard Florida가 1인지식서비스조직에서 말하는 3T란 Technology, Talant, Tolerance 이 세 가지를 말하는데 이 세 가지가 1인지식서비스조직의 유치에 영향을 미치고 1인지식서비스조직의 분포가 다시 지역발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Richard Florida는 주장하고 있다.

현재 외국에서는 위의 주장에 따른 연구들이 진행되었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이러한 연구가 진행된 적이 없다.

이에 따라 위의 이론이 서울시의 창의시정에서도 적용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위의 이론이 서울시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면 이 연구를 토대로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형성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지역발전에 관한 최근의 논의는 사회적 자본이론, 인적자본이론, 창조성 자본 이론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창조성 자본 이론 가운데 Richard Florida의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Richard Florida는 1인지식서비스조직의 분포가 지역발전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고 1인지식서비스조직의 분포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로 하이테크 지수(High-Tech Index), 혁신 지수(Innovation Index), 보헤미안 지수(Bohemian Index), 재능 지수(Talent Index), Melting pot 지수(Melting pot Index), 복합다양성 지수(Composite Diversity Index), 창의성 지수(Creative Index)를 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인지식서비스조직을 1인지식서비스조직 핵심집단, 1인지식서비스조직 전문가 집단, 1인지식서비스조직 예술가 집단으로 나누었으며 위의 집단 분포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들로 Richard Florida의 변수들을 기초로 하여 기술지수, 보헤미안지수, 외국인지수, 공공지수, 문화지수, 환경지수, 고용률을 독립변수로 정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1인지식서비스조직 분포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으로 한정하였으며, 전체내용은 제1장 서론을 포함하여 전체 5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서론으로서 본 연구의 문제제기에 따른 연구의 목적과 연구범위와 연구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제2장은 이론적 배경으로서 1인지식서비스조직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살피기 위해 1인지식서비스조직의 개념 및 종류를 살피고 1인지식서비스조직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1인지식서비스조직에 관한 이론을 정립하였고, 종속변수인 지역발전에 관한 개념과 중요성 및 영향요인을 기술하였으며, 지역발전에 대한 선행연구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다루게 될 것이다. 제3장은 연구방법으로 선행연구의 이론적 고찰로부터 얻어진 모형에서 설정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각 구성개념의 변수로 사용될 조작된 정의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서울시 1인지식서비스조직 분포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조사방법의 체계를 기술하고 마지막으로 자료의 분석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하였다. 제4장은 분석결과와 종합토의 부분으로 연구모형을 분석하여 제안된 모형의 인과관계에 따라 설정된 가설을 차례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서

울시 1인지식서비스조직의 분포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1인지식 서비스조직별 효율적인 지역발전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제5장은 결론으로서 본 논문 연구의 전반적인 진행과정과 흐름을 다시 한번 기술하고, 연구목적의 세부적 연구목표에 따라 연구결과를 요약·설명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의의와 연구 상의 제한점을 밝히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언하였다.



## 제 2 장 이론적 배경

### 제 1 절 1인지식서비스조직의 정의

지식서비스 산업 환경에 적응이 가능한 1인지식서비스조직 관련 연구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1인지식서비스조직의 개념에 대해서도 논의가 분분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1인 지식서비스조직의 의미가 얼마나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여러 기관들의 견해를 검토한 후 이들의 의견을 종합하도록 하겠다.

OECD<sup>1)</sup>: 1인지식서비스조직이란 단순히 지식과 정보를 저장, 처리하는 것이 아닌, 개인에게 내재화 되어 있는 자산인 창의성을 인식하고 이를 조직 구성원이 의사 결정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자산화 시키는 인재를 말한다.

지식경제부<sup>2)</sup>: 1인지식서비스조직이란 새로운 혁신을 창조하고 이것을 전 조직으로 확산 시키며, 그것을 다시 상품, 서비스, 시스템으로 형상화 시키는 인재를 말한다.

중소기업청<sup>3)</sup>: 1인지식서비스조직이란 조직의 현재나 미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획득, 개발하며,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조직 내의 모든 혁신을 관리하는 연속적인 프로세스를 일컫는다.

한국은행 ECOS<sup>4)</sup>: 1인지식서비스조직이란 조직 구성원의 내부에 존재하는 인적 자산을 인식하고, 조직의 자산으로 변환시키는 과정으로서, 개인이나 집단이 접근과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활동을 말한다.

한국표준원: 1인지식서비스조직이란 고객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적자산을 창출하고 고양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는데, 이러한 역량

1) 지식기반서비스(OECD 1999)는 생산자서비스(통신, 금융보험, 부동산, 광고, 사업서비스, 방송), 사회서비스(교육, 의료보건, 사회복지), 개인서비스(영화 및 연예, 기타오락서비스, 문화서비스) 중 지식집약도가 높은 일부 업종을 지칭한다.

2) 지식경제부 지식서비스팀. 2007.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전략」, p.27.

3)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 참고.

4) 한국은행 ECOS(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분류기준 참고.

을 만들고 축적시키기 위해 준비해야 할 모든 프로세스, 시스템, 문화, 역할을 일컫는다.

Singleman<sup>5)</sup>: 1인지식서비스조직이란 다양한 형태로 지식관리시스템의 지원을 받아 개선될 수 있는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을 대변하는 프로세스 중심적 관점과 문서의 창출, 저장, 활용 및 이를 조직의 지식관리시스템 내에서 재사용하는 “프로세스 상품 중심적” 관점을 포함한다.

위와 같은 여러 기관들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대체로 OECD와 지식경제부 등과 같이 1인지식서비스조직을 지식관리시스템적으로 좁게 해석하는 견해와 중소기업청과 한국은행등과 같이 1인 지식서비스조직을 프로세스적 관점으로 넓게 해석하는 경우의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1인 지식서비스조직 개념을 좁은 의미로 파악하면 1인 지식서비스조직을 지식정보관리로 생각하는 기관들의 부류로서 1인 지식서비스조직은 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일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이들에게는 지식서비스란 곧 지식관리시스템이 취급하는 대상을 의미하며 이러한 지식서비스는 지식관리시스템에 의해 관리되고 명시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지식관리방식은 정보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매우 빠른 발전을 보이고 있다. 한편 1인지식서비스조직을 넓은 의미로 이해하는 기관들은 1인지식서비스조직을 기존에 존재해 왔던 조직관리나 인간경영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하는 기관들로서 이들은 심리학, 철학, 사회학 등의 학문적 바탕을 두고 있다. 이들에게 지식은 곧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복잡한 일련의 기술, 노하우 등을 의미 한다.

1인지식서비스조직 이론을 창시한 Florida는 1인 지식서비스조직이란 유의미한 새로운 형태를 창출하는 기능을 가진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정의하고 1인지식서비스조직을 1인지식서비스조직 핵심집단과 1인지식서비스조직 전문가 집단으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다, 1인지식서비스조직 핵심집단은 널리 생산되고 판매되고 이용되는 제품을 디자인하고 적용될 수 있는 이론과 전략을 도출하고 쉽게 전파되고 널리 유

5) 김현정. 2005. 『서비스산업의 신성장동력 가능성 분석』,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p. 16



용하게 쓰일 새로운 형태의 지식을 창출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과학자와 엔지니어, 대학교수, 시인과 소설가, 연예인, 연기자, 디자이너, 건축가뿐만 아니라 현대의 사상적 지도자 즉, 비소설작가, 편집인, 문학의 인물, 종합연구소 연구원, 분석가 및 여타 여론 주도자들을 포함한다. 1인지식서비스조직 전문가 집단은 지식집약적인 산업에 종사하는 전문직 종사자들로 지식에 의존하면서 지식서비스 문제해결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1인지식서비스조직 핵심집단의 범위를 넘어 하이테크, 금융서비스, 법률과 보건 관련 직업과 같이 광범위한 지식집약적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 제 2 절 1인지식서비스조직 이론 관련 선행연구

### 1. 1인지식서비스조직 이론

본 장은 최근 도시계획, 정치학, 경제와 관련된 분야에 영향력 있는 이론으로 떠오르고 있는 1인지식서비스조직 이론에 대해서 논의한다. 본 분석은 Richard Florida의 1인지식서비스조직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이 이론은 미국과 캐나다 및 유럽의 도시경쟁력의 대표적인 이론으로써 사용된다.

지역 이론에 관련된 다른 연구자들과 마찬가지로 Richard Florida는 최근 세계의 추세가 이러한 고비용으로 재화를 생산하는 곳에 커다란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시 같은 국가는 전통적인 생산방식으로 경쟁할 수가 없다. 이유는 생산비가 상대적으로 동유럽,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에 비교할 때 높기 때문이다. 최근 IT 기술의 혁신을 통해 물류 비용의 감소는 이러한 전통적으로 표준화된 산업 생산이 지역 보다는 비용에 좀 더 영향을 받도록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산업생산은 점차 지역과 관련이 없게 되었다. 그러나 지식 집약적 생산에서는 이것이 해당되지 않는다.

생산비용이 중요하다든 것을 감안 하더라도 지식 집약적인 기업에 대한 지역 선호는 생산비보다는 다양한 다른 요인들에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산업 동향 및 지역적 차이에 관련된 이론에 따르면 시장, 문화, 지역적 근접성, 상대적 친밀도, 제도적 차이 등이 지식기반 생산에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이 같은 요인들이 새로운 지식의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새로운 지식이 가져오는 새로운 기술은 지식집약 비즈니스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있다.

Richard Florida는 우리가 지식기반 경제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현재의 복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점점 혁신에 의존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지속적인 창조적 인재의 공급이 요구되어진다. Richard

Florida는 재능있고 특히, 창조적인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그 이유는 그들이 그들의 직업분야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의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이다. Richard Florida에 따르면 1인지식서비스조직이 서방국가에서 전체 노동력의 30% 내지는 45%를 차지하고 있고, 연구자, 디자이너, 엔지니어, 예술가, 건축가, 비즈니스 리더, 민간/공공부문 관리자, 보건 및 복지분야, 교육기관의 선생님들과 같은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1인지식서비스조직의 핵심 주장은 재능있고 창의성 있는 인재들이 지식집약 생산의 핵심적인 자원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같은 재능 있고 창의성 있는 인재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전통적인 자원과는 달리 재능 있고 창의성 있는 인재는 이동성이 강하다. 결과적으로 도시는 비즈니스를 유치하기 위해서 재능있는 인재를 유치 및 유지해야 한다. 그 이유는 회사들은 1인지식서비스조직이 직업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이러한 재능있는 노동력을 갖춘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역발전은 그 지역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러한 창의적이고 재능있는 노동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 2. 지역발전 이론

1인지식서비스조직이론의 기본 논리는 기술, 재능, 관용 세 가지가 지식기반 경제의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것이다. 약칭하여 3T는 지역성장에 개별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통합적으로는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는 상호연관성 있는 요인들로 간주된다. Richard Florida에 따르면 각각의 요인은 필요하지만 그 자체로는 불충분한 조건이다. 창의적인 인재를 유치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은 세 가지 모두를 구비해야 한다.

Richard Florida는 지역 경제학 분야에서 보다시피 지역발전에 대해 수 많은 다양한 설명이 가능하다고 보고있다. 특히 Glaeser는 인적자본 이론을 제창했다. 그는 한 지역 내에 고학력 인재의 집중이 지역발전을 가져온다고 주장하고 있다.<sup>6)</sup> 1인지식

6) E. L. Glaeser, "Review of Richard Florida's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2005, p.593-96.

서비스조직 이론은 교육 받은 인재가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다른 요인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경제발전은 다양하고 관용성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개방적인 지역을 선호하는 창의적인 인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sup>7)</sup> 따라서 재능 있는 인재와 이러한 경제활동의 기반이 관용적이고 개방적이고 다양한 환경과 조합될 때 지역발전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발전의 기준에 알려진 요인에 관용을 추가하는 것이 1인지식서비스조직 이론의 가장 혁신적인 부분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1인지식서비스조직이론은 노동력의 복지와 관련 있는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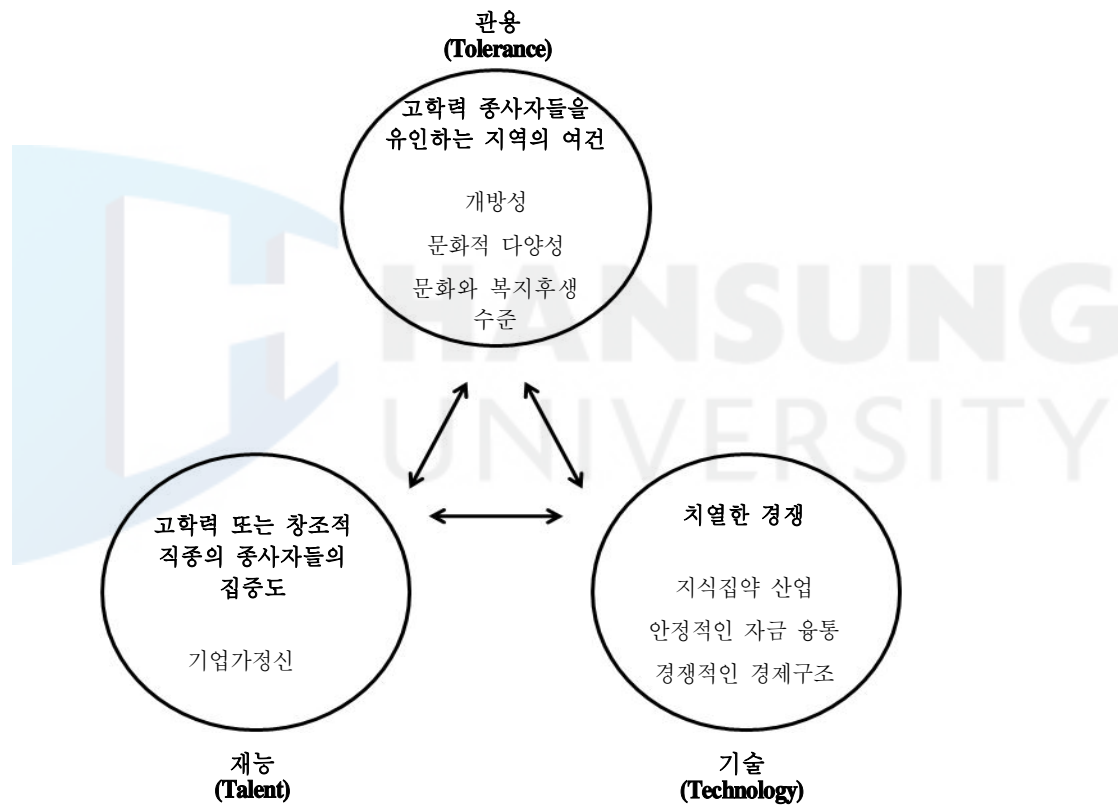
1인지식서비스조직이론에서 기술은 첨단산업으로 이해되고 재능은 정식교육을 받은 인재로 간주되고, 재능 있는 인재는 특정직업군 내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이해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 부분에서 다시 언급할 것이다. 기술과 재능 사이에 상관관계는 Glaeser에 의해 밝혀졌는데(Glaeser, 2003). 1인지식서비스조직이론은 특히 교육받은 재능 있는 인재 군과 첨단 경제활동의 집중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세 가지 핵심 요인 가운데 두 가지는 재능과 하이테크의 존재여부이다. 이 두 가지 요인은 지역발전 연구에서 자주 언급되어 왔다.

세 번째 요인인 관용은 도시의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관용은 낮은 진입장벽과 관련이 있다. 도시는 인구증가로 인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재능 있는 창의성 인재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므로 신규 진입자에 대한 개방성, 서로 다른 문화와 규범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와 같은 낮은 진입장벽이 도시가 이러한 재능 있는 인재를 확보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 이유는 이러한 개방적인 태도가 외국인들이 이주를 하는 것을 쉽게 만들어 주고 규범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인재들이 좀 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세 가지 T는 모두 동등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론적으로 이 세 가지 T는 동등하게 중요하고 이 세 가지를 통합함으로써만 경쟁적이고 창의성 있는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

7) E. L. Glaeser, op. cit. p. 249.

1인 지식서비스조직이론의 가정 중의 하나는 창의성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유사한 지역을 선호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재능 있는 인재를 끌어들이는 가치는 개방성과 다양성이다. 재능 있는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는 것에 추가하여 개방적이고 다양한 환경은 혁신을 높이고 그 지역 내의 기술적 기반에 대해 지지기반이 된다. 이는 이러한 높은 관용 수준이 다양한 사고와 행동을 하는 인재에 대한 활동 공간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인재는 아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실현시키고 적어도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인재는 혁신을 이끌어내는데 가치 있는 자원이 되고 있다.



<그림 2-1> 3T 모형

### 3. 조직적 환경 요인과 개인적 환경 요인

1인지식서비스조직이론의 중요한 논점은 지식집약 기업은 재능 있고 창의성 있는 노동력을 많이 확보한 지역을 따라 움직이며 창의성 인재는 어떤 특정한 품격을 가진 지역을 향해 움직인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인해 전통적인 기업 환경을 보완하여 개인적 환경을 추가하는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이 요구된다. 개인적 환경은 도시를 개별적으로 나누는 일련의 요소들로 구성되어 지며 1인지식서비스조직에 대한 선호도를 증가시킨다. 특히 관용성 변수가 중요하지만 그림 2-1의 세 가지 변수 모두 개인적 환경의 영향을 미친다. 긍정적인 개인적 환경이 제공되지 못하면 1인지식서비스조직은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해 갈 것이다. 1인지식서비스조직이론을 다룰 때 두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첫째 1인지식서비스조직은 매우 이동성이 높고 개인적인 필요를 우선시 한다. 따라서 그들의 필요가 충족되어지지 못하면 그들은 지역과 지역을 배회 할 것이다. 서울시와 북유럽 국가 전반에 걸쳐 이동성의 정도는 북미 지역과 비교할 때 그다지 높지 않다. 사회적 규제와 사회복지 시스템이 사회보장이 제공되지 못하는 북미지역과 같은 정도로 직업에 따라 직업을 찾아 이동하지 못하도록 한다. 둘째 1인지식서비스조직이론은 북미 지역 환경에서 개발되었다. 따라서 지역 간 이동하는 도시의 숫자가 많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시 간 경쟁도 훨씬 높은 북미 지역에서 개발된 것이다.

1인지식서비스조직이론의 높은 이동성에 대응하여 그 도시는 바람직한 기업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서 적합한 개인적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Florida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 수행되어진 몇 가지 연구결과이다. 최근의 지역개발에 대한 추세를 연구함으로써 그들은 어떤 지역이 대학을 보유하고 따라서 고학력 인력집단을 보유하고 신규 사업을 창업할 기반을 가지고 있음에도 항상 지역발전을 촉진시킬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중요한 이유는 긍정적인 개인적 환경의 손실이 재능 있고 창의성 있는 계층의 이탈을 촉진 시킨다. 결과적으로 잠재적인 인재와 좋은 사업환경 만으로는 지역발전을 가져오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Florida, 2002).

그러나 바람직한 개인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 사

이에는 미세한 차이가 있다. Putnam의 사회자본이론은<sup>8)</sup> 시민정신 즉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모든 사람들 배려하는 시민정신에 기반을 두고 있다. Florida에 따르면 이 같은 이론은 1인지식서비스조직 인재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반대로 미국 교외의 수 백채의 비슷한 가구와 동일한 피부색을 가진 동일한 사회계급, 동일한 종교, 동일한 문화적 소속감 등은 창의성을 말살시킨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다양성의 결여는 폐쇄적인 지역사회를 초래하고 새로운 진입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극히 제한적인 활동 공간을 제공한다. 훌륭한 학교를 가진 안전한 지역사회를 제공하는 것이 한편으로 긍정적인 개인적 환경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문화적, 사회적 다양성이 없이는 이 같은 요인은 정 반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 4. 1인지식서비스조직이론에 대한 비판

지방자치 실무자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는 했지만 Richard Florida의 이론은 학계에서 몇 가지 중요한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비판 가운데는 Malanga (2004), Gibson and Klocker(2005), Glaeser(2005), Markusen(2005), Peck(2005)와 Hansen(2005)이 있다. 본 절에서 1인지식서비스조직이론에 대해 제기된 비판에 대해서 소개하고 논의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1인지식서비스조직이론이 수정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도록 하겠다.

##### 1) 인적자본과 창의성자본

Glaeser는 인적자본이론의 주창자이다. 그의 기본 주장은 Florida가 1인지식서비스조직이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요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지역발전을 가져오는 것은 고학력 노동자들이라고 이야기 한다. Glaeser는 1인지식서비스조직이론의 느슨한 개념정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 같은 개념이 혼란을 부추긴다고 보고 있다. Glaeser가 대변하는 인적자본이론은 노동력의 교육수준이 지역발전을 이해하는 핵심

8) R. D. Putnam,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The American Prospect", 1993, p.35-42.

변수로 보고 있다. 이와는 달리 Florida는 동일 그룹에 속한 인재에 대한 개념<sup>9)</sup>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똑같은 용어를 창의성 직종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도 사용하고 있다.<sup>10)</sup> 그리고 때때로 인적자본과 창의성 직업을 혼동해서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재능이라는 용어에 대한 혼란스러운 사용이 Florida의 개념과 이론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러므로 다음 논의에서 Florida의 재능 개념은 창의성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처럼 사용되어질 것이다. 즉 이 개념은 Glaeser에 의해 정의된 인적자본 그룹보다 더 광범위한 숫자의 인적자원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

Glaeser는 인적자본의 위치와 지역발전 간의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기본적으로 Glaeser의 인적자본 이론과 Florida의 1인지식서비스조직이론 사이의 중요한 차이는 1인지식서비스조직이론은 지역발전을 설명할 때 재능과 다른 변수를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Glaeser는 높은 교육수준의 교육을 받았지만 웨이트리스와 같은 비정규직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Florida는 정식 교육을 받지 않은 창의성 노동자를 포함하고 있고 통계적으로 창의성 직업 내에 종사하지만 반드시 창의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시키고 있다. 예컨대 공공서비스 부문의 직종이나 재정서비스 부문의 직종과 같은 창의직종 내에는 포함되지만 반드시 창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는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다. 다음 장의 분석은 서울시 내의 1인지식서비스조직이 정식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의 4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Glaeser(2005)는 교육에 너무 높은 중요성을 두고 있지만 업무기능과 같은 다른 영향요인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학력 노동자의 80% 대다수가 Florida에 의해 정의된 창의적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의 비판에서 Glaeser(2005)는 신 데이터를 근거로 강력한 주장을 펴고 있다. 그는 Florida의 1인지식서비스조직이론의 커다란 구멍을 지적하고 있다. Glaeser의 통계적 발견에 따르면 인구증가가 관용, 창의성, 혁신 같은 변수보다 재능에 더 커다

9) Florida Richard, "The Economic Geography of Talent.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2002, p.333.

10) Florida Richard,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2005, New York: Basic Books, 2005, p.51



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Glaeser는 1인지식서비스조직을 인적자본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창의성 코어에 국한하여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1인지식서비스조직을 Florida와 같이 전반적인 1인지식서비스조직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 Florida의 1인지식서비스조직 모집단은 대부분의 서방국가 노동력의 대략 35%를 차지하지만 Glaeser의 분석에 사용된 모집단은 Florida의 정의에 창의성 코어에 해당되는 사람만을 포함하는 상당히 적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바로 이 점이 두 사람 사이의 중요한 차이이다.

Florida(2004)가 사용했던 동일한 데이터에 대한 회귀분석을 통해 Glaeser는 증가하는 인구를 가진 도시와 높은 교육수준의 노동자집단 간에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발견했다. 이는 팽창하는 도시들이 경제발전을 위한 여건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Glaeser는 인구증가와 특허지수, 동성애지수, 보헤미안지수 사이에 중요한 관계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Florida의 창의성과 혁신과 관용의 지표로 사용되어지는 혁신지수, 관용지수, 보헤미안지수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지수는 재능과 비교할 때 인구증가에 영향을 미친다.

Florida의 1인지식서비스조직을 선호하는 주장에 따르면 창의성은 학교에서만 학습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특히, 창의성 전문가 집단은 반드시 고학력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수성가 하거나 천부적으로 재능과 창의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Glaeser가 Florida에 대해 사용한 비판적 분석에서 창의성 코어만을 언급할 때 그는 이론의 일부분만을 언급한 것이다. Glaeser의 비판은 신중하게 받아들여야만 한다. 기술, 재능, 관용이 지역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 인적자본의 영향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Glaeser가 그의 비판적 분석에서 경제성장의 대리변수도 사용했던 인구증가는 경제발전에 대한 여러 대리변수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Glaeser의 비판이 단순히 인적자본 이상을 포함함으로써만 이론적 논의를 좀 더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서울시의 데이터는 교육수준과 1인지식서비스조직 간의 상관관계가 0.935임을 보여주고 있고 따라서 1인지식서비스조직과 재능이 서울시

내에서는 서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같은 높은 상관관계는 Glaeser의 주장 즉, 인적자본이 서울시 환경에서 경제발전에 중요한 요인이다 라는 Glaeser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서울시에만 국한되는 연구결과이다. 핀란드에서 우리는 좀 더 높은 상관관계(0.96)를 발견했고 덴마크와 노르웨이에서의 상관관계는 (0.84와 0.85)를 발견했고(Andersen, 2007), 다른 국가에서 상관관계가 좀 더 낮을 것이라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서울시 내에서 1인지식서비스조직과 인적자본 사이에 상관관계의 차이가 0.065에 불과하나 덴마크에서는 차이가 0.16으로 인적자본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와 1인지식서비스조직이 미치는 영향효과가 차이가 있다는 정당한 근거가 되고 있다. 덴마크와 핀란드, 노르웨이, 서울시에서 확보된 데이터는 실제로 재능과 1인지식서비스조직 사이의 상관관계가 0.34로 국가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2) 1인지식서비스조직의 모호한 개념

Markusen(2005)은 Florida와 그의 1인지식서비스조직이론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Glaeser(2005)에 동의하면서 Markusen의 주요 비판은 Florida의 1인지식서비스조직 개념이 특정 직업군에 창의성으로 국한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Markusen은 창의성이 애매모호한 개념으로 모든 사람이 동의하기 어려운 개념이라고 보고 있다. Markusen은 또한 Florida가 직업에 대한 데이터를 무비판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창의성과 교육수준을 부풀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Markusen에게 범죄자, 수리공, 기능공도 창의적이다. 그러므로 창의성을 통계적인 틀에 제약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결과적으로 Florida가 믿고 있는 것 보다 훨씬 창의성이 낮은 모집단의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를 가져왔다.

본 연구에서는 창의성을 직업군에 놓는 것이 어렵다는 Markusen의 지적을 지지한다. 마찬가지로 교육도 창의성의 표상은 아니다. 목수, 범죄자, 수선공들도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만큼 창조적일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인 주장을 통계적인 결과에 근거하는 것은 일반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을 보지 못할 수 있다. 학문적으로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근거 있는 주장을 때때로 강력한 주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Florida가 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Florida의 통계적 코드의 선택에 의심이 가고 창의적으로 포함되어지지 않는 직업군에 대해 비판적일 수 있다. 또한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해 복잡성을 줄이고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인정한다. 끝으로 Markusen(2005)은 교육수준과 Florida가 정의한 창의적인 직업수준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지적한 바가 있다. 이것은 미국에서는 해당될지 모르나, 서울시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서울시 내의 1인지식서비스조직에 포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은 불과 40% 수준으로 나머지 60%는 학사학위 미만의 학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어 교육과 1인지식서비스조직 간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미국과 서울시에서는 해당이 되지만 다른 케이스에서는 영향력이 적은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 3) 정책결정의 문제

세 번째로 Peck(2005)에 의해 제기된 Florida의 1인지식서비스조직이론의 비판에 대해 살펴보겠다. Peck은 공공정책 결정자들이 1인지식서비스조직이론에 바탕을 둔 전략을 실시할 때 직면하게 될 세 가지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sup>11)</sup>

첫째, 도시는 이러한 매우 유동성이 높은 재능 있는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할 것이고 동일한 정치적인 조치를 시행하게 될 것이다. 성공적인 전략은 항상 모방의 대상이 될 것이다. 도시들은 새로운 정치적 액션이 취해질 때마다 새로운 것을 창안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 많은 도시가 똑같은 전략을 집행하는 것은 문제이다. 다행히 많은 도시들이 그러한 도시 전략을 지역적 특색을 가미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전략은 자주 현재의 전략과 경제적 현실 사이에 커다란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잠재적 위기에 대한 전략적 판단은 현재의 경제 흐름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

둘째, Peck(2005)은 이러한 1인지식서비스조직에 대한 경쟁은 1인지식서비스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개인들에 대한 매력적인 환경을 만들어 내기위해 힘을 모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지역적으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격차가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는 커다란 문제로써 창의성에 대한 강조가 사회 내에 차별화된 비창의적인 그

---

11) J. Peck, "Struggling with the creative class.",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29, 2005, p.740.

룹 간의 간격을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다. 한 가지 시나리오는 많은 도시가 축진하고 있는 도시 지역 내의 귀족화 현상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한계선 상에 있는 계층을 대체적인 거주지를 제공하지 않고 추방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결과가 따른다. 첫째, 이러한 한계 집단은 아무도 공동 책임을 지고 싶어하지 않는 집단이 되고 극단적으로 그들은 지역 내의 피난민들이 될 것이다. 둘째, 이러한 한계 집단을 몰아내고 대규모 도시지역을 귀족화함으로써 도시는 도시 자체를 1인지식서비스조직에게 특별하고 매력적으로 만든 도시 자체의 독창성을 잃을 수 있다. 이는 Florida의 이론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점이 되고 있다. 1인지식서비스조직에 있어 매력적인 물리적 공간을 창출하는 것은 1인지식서비스조직이론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다양성을 파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정책수립은 양쪽 측면을 가지고 있다. 한쪽에서 1인지식서비스조직을 유인하고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고 다른 한편에서 도시의 독창성을 유지해야만 하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셋째, Peck(2005)은 거리의 문화와 개/보수된 빌딩이 경제발전의 결과이자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1인지식서비스조직이론의 타당성을 위해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대한 지표는 변수를 통제하거나 시계열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또는 1인지식서비스조직 인재를 인터뷰하거나 그들의 선호도를 추적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도시발전의 필요성과 상황에 대한 그림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원인 또는 결과로 결정되는 것은 조사자의 판단에 따른다.

#### 4) 지식기반이론

끝으로 우리는 Hansen(2005)에 의해 제기된 비판에 대해 살펴보겠다. Hansen은 인구의 35%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동일한 관심과 선호도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Markusen(2005)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1인지식서비스조직에 대한 좀 더 다양한 이해와 지역발전의 역할을 살펴보기 위해 우리는 이러한 1인지식서비스조직이론을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많은

도시에서 외각 지역은 엔지니어, 교사, 공무원들로 가득 차있는 반면 도심지는 예술가, 광고업 종사자, 일반적으로 젊은 계층에 매력을 주고 있다. 따라서 1인지식서비스조직의 여러 종사자들은 서로 매우 다른 선호도를 가진 사람이 직업과 연령별로 나타날 것이다.

서로 다른 1인지식서비스조직을 대변하는 다양한 선호도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Hansen(2005)은 1인지식서비스조직이론에 지식기반 분석 틀을 추가함으로써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Asheim, 2005). 가장 단순한 형태로 지식기반이론은 지식을 세 가지 범주로 나누고 있다. 각 범주는 이상적인 형태이며 각각의 범주는 제화와 용역의 생산에 관련 있는 지식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분석적 지식기반은 과학적 지식이 중요하고 지식의 창출이 합리적, 인지적 과정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산업과 관련이 있다. 분석적 지식기반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산업은 생명공학과 나노공학이다. 이 분야 근로자의 핵심은 연구훈련과 대학교육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은 대학가 근처에 위치하고 있다. 통합적 지식기반은 이러한 혁신이 주로 기존의 지식을 응용하거나 기존의 지식을 새로 통합함으로써 일어나는 활동을 언급하고 있다. 전형적인 산업은 공장 엔지니어링, 특수 첨단산업기기 생산시스템 등이다. 통합적 지식근로자는 노하우, 실제적인 기술 등을 필요로 하고 따라서 이 같은 산업은 전문대학 근처에 소재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의 실제 훈련이 요구된다. 상징적 지식기반은 제품의 디자인 또는 이미지의 심미적 요인과 관련이 있다. 활동이 디자인과 혁신 지향적이고 기존의 가치와 이상적 가치의 변화가 자주 나타난다. 상징적 지식기반에 근거한 산업은 대규모 도시지역 근처에 모이는 경향이 있다.

Hansen(2005)은 이 같은 세 가지 지식기반 가운데 각각은 사업적 환경과 개인적 환경에 다양한 조합을 요구하고 있다. 혹자는 통합적 지식기반을 요구하는 인재가 개인적 환경요인에 대해서보다는 상징적 지식기반을 요구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상징적 지식기반 노동자는 문화적, 정치적 다양성을 필요로 한다. 통합적 지식기반 노동자는 도시의 흐름에 영향을 덜 받는다. 결과적으로 상징적 지식기반 노동자가 상당히 모여 있는 그러한 지역은 통합적 지식기반을 가진 지역에 비해 개

인적 환경요인에 좀 더 관심을 가질 것이고 이 같은 시각을 1인지식서비스조직이론에 추가함으로써 1인지식서비스조직과 지역발전에 대한 논의를 함에 있어서 좀 더 다양한 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정책담당자가 개인적 환경요인을 지역발전에 연결시키고자 할 때, 이 방법은 아직 정교하게 개발될 필요가 있다. 1인지식서비스조직을 다양화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분석 틀을 제공하고 1인지식서비스조직이론을 다양한 경제적 지역적 현실에 보다 적합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제3절 개인적 차원의 1인지식서비스조직 성공도 관련변수의 선행 연구

Florida의 1인지식서비스조직이론에 따르면 개인적 환경요인은 지역발전에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는 개인적 환경요인 가운데 두 개의 중요한 지표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관용성 지표로 차이에 대한 개방성을 살펴보고, 둘째로는 지역의 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1. 관용성 지표

다양성은 인재 즉, 인적자본을 유치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도시 및 지역경제학자들은 다양성이 지역경제 수행에서 중요하다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다. 그런데 거기서의 다양성은 주로 기업의 다양성이거나 지역산업 구조의 다양성을 말한다. 존 퀴글리는 지역경제는 일련의 다양한 기업과 산업이 입지해야 잘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Richard Florida의 주장은 다르다. Richard Florida는 하이테크 산업을 지원하고 지역을 성장시키는데 필요한 인재를 유인하고 보유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제이콥스는 혁신을 유발하고 도시를 성장시키는 데 있어 다양성과 주민 유입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또한 제이콥스 피에로 데스로서는 다양성, 창조성과 지역 혁신간의 관계를 지적하였다. 파스칼 제커리는 이민에 대한 개방성이 혁신과 경제 성장에 주요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하이테크 분야에서 미국이 경쟁력을 갖는 것은 외부인에 대한 개방성 때문이고 일본과 독일이 상대적으로 정체하고 있는 것은 폐쇄성과 상대적 동질성 때문이라는 것이다. 에너지 세션의 실리콘밸리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역대 신규 창업 기업은 중국 또는 인도 출신 사업가에 의한 것이었고 과학자나 엔지니어의 1/3은 외국 출신이었다. 반복하지만 다양성 즉, 인재에 대한 낮은 진입장벽은 해당지역의 인재 경쟁력을 향상시킨다.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지역들도 다른 지역들과 인재를 둘러싸고 경쟁한다. 하이테크 산업이나 기타 경제 활동들을 지원하려면 지역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다양한 인재를 경쟁적으로 획득해야 한다. 그러므로 다양성에 대해 개방적인 지역은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지역에 비해 국적, 민족 지향별로 더욱 다양한 인재를 유인할 수 있

다. 또한 인적자본의 진입장벽이 낮고 개방적인 지역은 인재경쟁, 또는 인적자본경쟁에서 경제적 우위를 갖게 되고 하이테크 산업의 창업 유치 또는 소득향상 능력에서 유의를 갖는다. 연구모형은 이러한 관계를 구조화 한 것이다.

[표 2-1] 관용관련 선행연구 요약

연구자	연구내용의 시사점
Park(19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헤미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회의 특히 도시에 하위문화 자본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주장</li> </ul>
Brooks(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르주아와 보헤미안을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보헤미안과 부르주아를 혼합하여 보보스라는 혼합 개념으로 대체할 것을 주장</li> </ul>
Jacobs(19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창조성, 보헤미안적인 다양성과 도시생활간의 상관관계를 주장</li> </ul>
Clark(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 생활, 인적자본의 유치, 경제 성장에서 라이프스타일과 문화 어메니티가 미치는 영향 연구</li> </ul>
Couns(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헤미안의 창조적 활동가 창조 경제사이에 상관성이 존재한다고 주장</li> </ul>
Graner(19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헤미안과 부르주아를 구분하여 보헤미안은 자본주의의 전통적인 프로테스탄트 윤리의 외각에 존재하는 사람들로 자유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고 일보다는 향락과 자아실현을 우위에 두는 이를 말하고 일과 즐거움을 맞교환하는 것이 자본주의 문화의 핵심적 모순으로 간주했으며, 문화가 변화를 선도하고 경제가 그것에 맞추어 왔다고 주장</li> </ul>
Cebrooks(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래의 고급문화와 저급 문화의 구분을 뛰어넘어 새로운 사회 집단으로써 보헤미안-부르주아 즉, 보보스라는 새로운 종류의 라이프 스타일의 등장을 인지</li> </ul>
Park(19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역동적인 도시는 독특한 라이프 스타일과 대안 문화의 공간을 발전시키고 하위문화 집단이 정책성을 느끼면서 도시생활에 포용적인 틀을 구성함</li> </ul>
Jacobs(19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성장의 엔진으로써 창조성과 다양성의 역할을 강조하며 도시 발전에서 절충과 발명이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li> </ul>
Clark(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라이프 스타일 지향적인 현대도시는 어메니티가 지역발전에 핵</li> </ul>



	심 요소라고 주장
Kotkin(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라이프 스타일 어메니티와 하이텍 산업의 입지 선호와의 관계를 밝혀내고 하이텍 기업의 절반이 도시의 어메니티 수준이 높은 지구에 있다는 것을 밝혀냄</li> </ul>
Richard Florida(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헤미안 지수는 1999년 센서스의 직업자료를 근거로 하며 지수에 포함된 직업은 작가(183), 디자이너(182), 음악가작곡가(186), 연기자감독(187), 공예가화가(188), 사진작가(189), 무용가(193), 기타관련 종사자(194)임</li> <li>전국보헤미안 인구에 대한 지역보헤미안 인구의 비중을 전국 인구당 지역인구의 비중으로 나눈 값</li> <li>보헤미안 지수와 인재 지수간 상관관계는 0.01 유의수준에서 0.553으로 나타났고 보헤미안 지수와 외국인 지수간 상관관계는 0.505이며 유의수준은 0.01으로 나타남</li> <li>다변량 회귀분석결과, 수정된 R2값이 0.7로 안정적이고 양의 관계를 보임</li> </ul>

1인 지식서비스조직이론에서 관용성은 그 지역 내의 서로 다른 외모와 생각과 행동에 대한 개방성의 정도로 측정된다. 이러한 다양성이 혁신을 이끌어내는 동력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그 역할이 매우 크다. 관용은 매력적인 개인적 환경요인을 창출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관용은 몇 가지 변수에 의해 측정되어진다. 첫째, 보헤미안 지수 둘째, 외국출생 인구의 비율로 측정되어지는 두 개의 개방성 지수로 소개되며 끝으로 외국 태생의 인구와 서울시 태생의 인구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통합지수가 소개되어 질 것이다.

Florida가 말하는 태도지수(Attitudes Index)란, 인종 차별 주의와 노예제도에 대한 유로피안 모니터링 센터의 설문조사와 EUMC 와 SORA의 사회적 연구 분석 2001년 데이터에 기초한 것으로 응답자의 비율에 따른 적극적/ 소극적 관대의 태도 지수로 정의한다. Value 지수(Value Index)이란, 하나님을 다루는 태도, 종교, 민족주의, 권위, 가족, 여성의 권리, 이혼과 낙태 등을 기반으로 설문조사한 값으로 전통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의 인식의 차이를 반영한 값으로 정의하였으며, 이는 세계 설문 조사, 미시간 대학<sup>12)</sup>의 데이터에 기초하였다. 자기표현지수

12) 미시간 대학 홈페이지 자료 참고 <http://wvs.isr.umich.edu>

(Self-Expression Index)란, 국가적 인식과 자기수용을 표현한 값으로 표현, 삶의 질, 민주주의, 과학 및 기술, 레저, 환경, 신뢰, 시위, 정치, 이민자와 게이들의 노출된 개인의 권리 및 자기표현을 반영한 것으로 95년부터 98년까지 실시된 65개국의 미시간 대학의 설문조사 데이터에 기초한 값으로 정의했다. Euro 관용 지수(Euro Tolerance Index)란 위 세 가지 관용지수의 수치를 종합한 것으로 1-15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점수로서 정의한 것을 말한다.

## 1) 보헤미안 지수

18세기 영국에서 카나리아는 탄광에서 가스 수준을 측정하는데 사용되었다. 만일 카나리아가 죽게 되면 가스 수준이 너무 높은 것이고 광부들은 모두 탈출해야 할 것이다. 보헤미안 지수는 같은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개방성과 차이에 대한 관념이 결여되어 있으면 마찬가지로 보헤미안 인구 역시 탈출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1인지식서비스조직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개념으로 보헤미안 지수를 관용에 대한 대리변수로 정당화 시키는 논리이다.

보헤미안 직업은 저자, 아티스트로 구성되며 보헤미안 지수는 지역 내의 천 명당 보헤미안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율로 측정되어 진다. 1인지식서비스조직이론에 비추었을 때 지역지수 1이상은 국가평균 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1보다 낮은 숫자는 그 반대를 의미한다.

## 2) 개방성 지수

서로 다른 규범에 의해 살고 있는 서로 다른 사람에 대한 개방성은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는 외국 태생 인구를 다양성에 대한 관용의 대리변수로 조사하였다. 우리는 두 가지 상이한 지표를 사용하였다. 개방성 1은 전체 인구 가운데 비서구인 외국인 인구의 비율로 측정하였다. 개방성 2지수는 전체 인구에 대한 모든 외국인의 비율로 측정하였다. 서방과 비서방의 인종적 범주는 첨부 1에 제시되어 있다. 개방성 1과 개방성 2 지표에서 높은 숫자 즉, 외국 출생 인구의 높은

비율은 그 지역의 개방적 환경에 대한 긍정적 지표로 보여진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는 통합과 수용이라는 관점에서 관용과 관련이 없는 것이다. 외국 인증 집단의 밀집은 갈등을 초래할 수 있고 그 도시 지역의 몰락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개방성 1지표와 개방성 2지표에 대한 비판적 언급과 관용성과 개방성에 관련된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

## 2. 지역의 질 지표

관용과 더불어 지역의 질 지표가 개인의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지역의 매력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lorida(2005)는 1인지식서비스조직의 이동성을 지적하고 이러한 1인지식서비스조직을 전 세계로부터 유치하고 유지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관용성과 지적인 동료, 다양한 직업과 더불어 두 가지 요인이 1인지식서비스조직의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가 복지, 둘째가 다양한 문화시설 제공이다. 다음의 항목에서 두 가지 지표가 지역의 질에 대한 대리변수로써 도입되었다. 공공제공지수(PPI)는 복지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 도입되었고 문화기회지수(COI)는 지역 내의 문화시설 제공을 측정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 1) 공공서비스지수

공공제공지수는 지역주민에게 제공되어 지는 공공서비스의 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 지수를 도입한 이유는 1인지식서비스조직은 높은 공공서비스 수준을 제공하는 지역에 모여든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 이 지수는 주로 교육 그리고 공공보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지수는 지역 내 인구 100명당 공공서비스 분야의 종사자의 숫자로 측정되어 진다. 덴마크, 서울시, 노르웨이 같은 복지 국가의 복지 기능은 중앙정부에서 결정이 되어지고 따라서 지역적인 차이가 작고 정치적인 영향력이 높다. 자연히 이는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해석을 어렵게 하고 있다. 반면에 1인지식서비스조직이 이러한 높은 공공 서비스를 가진 지역에 집중된다면 이러한 수준이 현지 지역, 국가, 정부의 기능과는 관련이 없다. 이 PPI는 지역 내

에 제공되어 지는 서비스의 질이나 생산성과는 관련이 없다.

## 2) 문화기회지수(COI)

공공제공지수가 특정 지역의 공적 서비스 수준의 대리변수인 반면에 문화기회지수는 지역 내의 문화적 서비스의 제공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조사해 보아야한다. COI는 지역 간의 문화적기회 수준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 개발되었다. 인구 100명당 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로 측정되어 진다. 이 지수는 영화, 비디오, 박물관, 도서관과 같은 문화사업을 포함하고 있고 도시의 삶을 매력적이고 쾌적하게 만드는 점과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식당, 스포츠 활동과 같은 고용도 포함되어 진다.



## 제4절 조직적 차원의 1인지식서비스조직 성공도 관련변수의 선행 연구

성공적인 지역이 되기 위해 다양한 요소가 성공적으로 상호작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연구는 경제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특히 지식집약 산업에 있어 이 같은 효과는 실리콘 벨리와 같은 예에서 보듯이 강력한 효과를 나타낸다. 3 장에서 우리는 1인지식서비스조직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이는 그 지역 내의 노동력의 질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하다. 또한 지역 내의 노동력의 일반적인 기술과 전통적인 생산방식 또한 지역을 개발하고 계획하고 브랜딩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다. 노동력의 품질은 기업의 니즈를 충족시켜야 하고, 기업의 고용기회는 노동력의 품질을 충족시켜야 한다. 4장에서 특정 요인이 1인지식서비스조직에 매력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 하에 개인적 환경요인의 지표들을 살펴보았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서울시 노동 시장에 기업적 환경요인의 지표를 분석할 것이다. 기업적 환경요인과 개인적 환경요인과 1인지식서비스조직의 분포를 종합하여 우리는 지식기반 경제하의 서울시의 국가 경쟁력과 가능성에 대한 다차원적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두 가지 지표가 기업적 환경요인의 상태를 측정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가 기술지수이다. 국가적 관점에서 첨단산업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며, 둘째는 지역 내의 기업가적 정신을 나타내는 창업, 창업율이 기업환경 요인의 대리변수이다.

### 1. 기술지수(지식기반생산)

창조자본이론에서 기술은 경제발전에 핵심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기술이 지역과 다른 산업의 이전가능성은 환경적 요인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Basu는 기술이 확산되는 다양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지역은 국가 평균성장률을 밑돌고 있다. Basu는 과거의 연구는 기술적 회사의 집약이 지역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지나치게 주장했다고 말한다. 또한, 요켄슨(1999)은 기술발전의 신속한 변화가 제 3지역에 대한 확산효과를 가져온다는 전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술제조자들은 기술의

효과를 도시전반에 이전시키기보다 회사 또는 사업 내 연구개발에 대부분의 투자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그들의 연구는 보편적으로 기술은 지역경제발전을 가져오는 특성에 제한적 또는 조건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기술에 더불어서 관용성도 지역경제를 성장시킬 창의성 있는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도시의 필수 요건으로 제시되고 있다. 1인지식서비스조직에서 관용이란 정치학자나 사회 심리학자의 표출된 태도적 특성과는 다른 다양성 측정수단으로 구성된다.

퍼그슨은 정보통신 네트워크가 가장 발달한 지역은 하이텍 산업을 견인하는 거점이 될 뿐 아니라 인재를 유인 할 수 있는 수단임을 주장하였고 에드워드 글래서는 창조경제에서 지역발전은 경제학적 요인보다 인재 유치를 위한 폭넓은 환경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하는 사회학적 요인들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기술관련 선행연구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표 2-2] 기술관련 선행연구 요약

연구자	연구내용의 시사점
Ferguson(19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통신 네트워크가 가장 발달한 지역은 하이텍 산업을 견인하는 거점이 될 뿐 아니라 인재를 유인할 수 있는 수단임</li> </ul>
Michael Porter(19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창조경제 하에서 환경의 질은 인재를 유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무결점(품질), 무제고(적기생산방식), 무폐기물을 달성하기 위한 3대 제로 생산시스템을 통한 환경 친화적인 생산방식 도입을 주장</li> </ul>
Edward Glaser(19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창조경제에서 지역발전은 경제학적 요인보다 사회학적 요인들이 중요하며 이 사회학적 요인은 인재 유치를 위한 폭 넓은 환경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함.</li> </ul>
Richard Florida(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메니티와 인재간의 연관성을 조사한 결과, 고속권 혹은 지식 집약적 노동에 대한 산업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어메니티 수준이 높은 도시의 지식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얻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어메니티와 교육간에는 분명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교육수준이 높은 인재집단일 수록 어메니티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남. 어메니티와 지식집약도 간의 상관관계는 대졸 이상의 인재집단은 매우 높은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난 반면,</li> </ul>

	고졸 미만의 인재집단에서는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KPMG(19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리의 매력도와 관련된 요인에 대한 조사결과, 급여조건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지역의 삶의 질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가족 및 친구와의 근접성, 각종 혜택, 스타트업, 기업의 안정성 순으로 나타났음.</li> </ul>
Richard Florida(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젊은 창조적 노동자들은 경제적 기회와 라이프 스타일에 동등한 가치를 부여함. 그들은 여가시간을 제대로 즐기길 원함.</li> </ul>

Florida는 경쟁적인 지역을 건설하기 위해 첨단 산업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지역의 첨단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지표는 기술지수로 측정되어 진다. 여기서 우리는 또한 기술지수를 첨단 기술 생산의 중요성을 측정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Florida와 달리 우리는 지식집약 비즈니스 서비스와 자동차 산업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추가는 R&D를 내포하고 있다. Devol의 원래 기술지수에 추가하여 우리는 이 지수가 유럽적 상황에서 좀 더 적합한 측정 수단으로 변형시켰다.

Florida가 말하는 혁신 지수(Innovation Index)란, 총 인구수 대비 단위 100만명당 미국 특허 사무소에 등록된 특허 어플리케이션의 개수로 정의하였으며 이는 유럽 의회에서 실시한 "Towards a European Research Area. Key Figures 2001"의 설문조사에 데이터를 기초로 하였다. 기술혁신 지수(Technology Innovation Index)는 총 인구수 대비 100만 명당 미국 특허 사무소에 등록된 하이테크 특허 어플리케이션의 개수로 정의하였으며 이는 유럽 의회에서 실시한 "Towards a European Research Area. Key Figures 2001"의 설문조사에 기초로 한 데이터이다. R&D 지수(R&D Index)란 GDP(총생산) 대비 연구 지출비용의 비율(%)로 2001년 유럽의회의 통계 데이터를 기초로 한 것이다.

통계적으로 지식집약 생산은 정의된 범주 내의 종업원의 수에 의해 표시된다. 포함된 범주의 리스트는 첨부 1에서 첨부 2 표 위에 나타나 있다. 첨단산업의 고용을 비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93년부터 97년 까지 서울시 내의 산업 구조의 변

화를 제 1시기, 2006년을 제 2시기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93년부터 94년 사이와 2001년 2006년 사이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93년부터 2002년 사이의 변화는 불확실한 데이터를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데이터는 첨단 산업과 지식집약 산업의 증가가 지역발전의 지표가 된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 수정된 첨단 지식집약 생산은 전체 고용의 10%를 차지하고 나머지 90%는 이 지표에 나타나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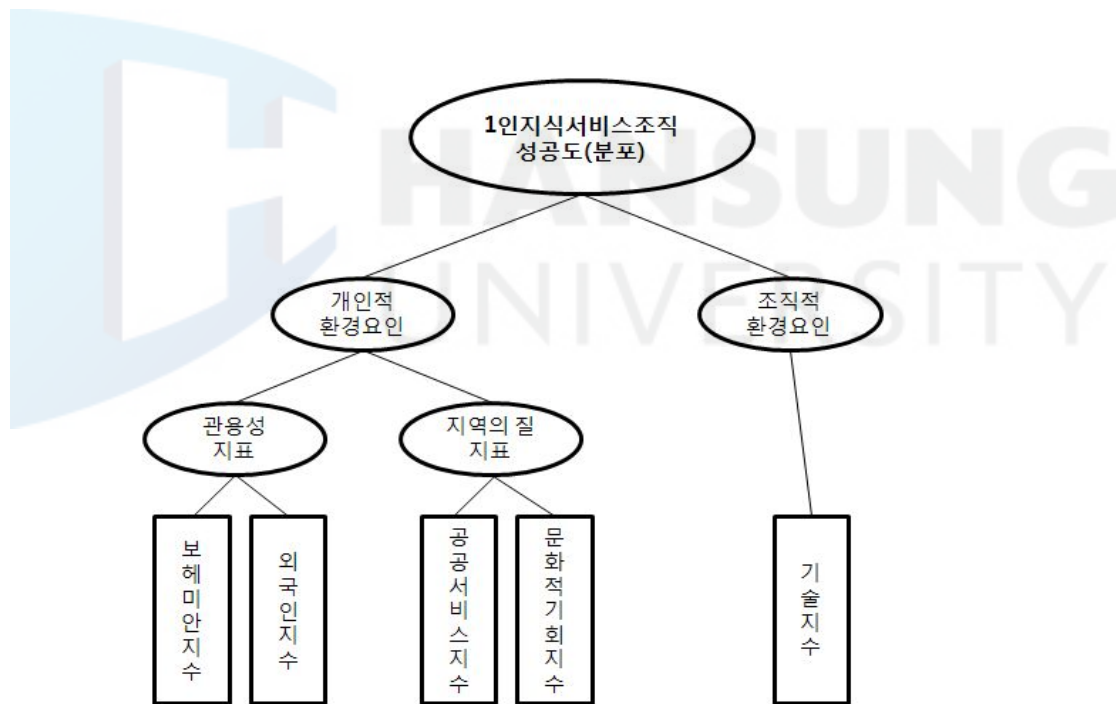




### 제 3 장 연구 설계

#### 제 1 절 연구 모형

본 연구는 1인지식서비스조직 환경에서 성공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개인적 환경요인 관련 변수들과 조직적 환경관련 변수들로 구성된 분석의 틀 속에서 개인적 환경요인 관련 변수들과 조직적 환경 관련 변수들이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1인지식서비스조직 성공도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한다. 상호독립적인 개인적 환경요인 변수들과 조직적 환경요인 변수들을 통합 구성함으로써 개별적인 측정수단 적용 보다 정확하고 포괄적인 1인지식서비스조직 성공도 측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3-1> 1인지식서비스조직 성공도 관련 연구모형

## 제 2 절 연구가설 설정

본 연구에서는 1인지식서비스조직 성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개인적 환경 요인, 조직적 환경 요인에 해당되는 요인을 대상으로 연구한다. Richard Florida(2002, 2004)은 최근의 1인지식서비스조직 성공도에 관한 연구들과 경향을 반영하여 2002년에 제시한 3T 모형을 수정·보완한 새로운 1인지식서비스조직 성공도 모형을 제시하였는데 이 수정모형에 지역의 질을 추가하였다,

### 1. 1인지식서비스조직 성공과 개인적 환경요인에 관련된 가설

1인지식서비스조직 성공과 개인적 환경요인에 관련된 변수는 관용성과 지역의 질에 관한 것으로 초기 1인지식서비스조직 연구에서부터 많은 연구에서 변수들이 제시되어 왔는데, Richard Florida(2002), Child(2004), Westlund(2007), 등 1인지식서비스조직 성공에 관한 주요 연구에서 보헤미안지수, 외국인지수, 공공지수, 문화지수이라는 변수가 관용에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지역의 질이 중요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Richard Florida(2002)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공지수와 문화지수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적 환경 요인에 대한 연구를 위해 보헤미안지수 외국인지수, 공공지수와 문화지수라는 4개의 가설을 선정하였다.

[표 3-1] 개인적 환경요인 관련 연구가설

		개인적 환경요인은 1인지식서비스조직성공에 정(+) <sup>1</sup> 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1	관용성 가설1-1	• 보헤미안지수는 1인지식서비스조직성공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관용성 가설1-2	• 외국인지수는 1인지식서비스조직성공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2	지역의 질 가설2-1	• 공공서비스지수는 1인지식서비스조직성공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지역의 질 가설2-2	• 문화적기회지수는 1인지식서비스조직성공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 2. 1인지식서비스조직 성공과 조직적 환경요인에 관련된 가설

1인지식서비스조직 성공과 개인적 환경요인에 관련된 변수는 Richard Florida(2002, 2004)의 연구 이래 주로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으나 Glaser (2002), Putnam(2004) 등에 의하여 1인지식서비스조직 성공도의 변수로 접목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인지식서비스조직 중심의 조직적 환경요인에 대한 측정항목을 수정·제시한 Richard Florida(2002)의 연구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기술 지수에 관련된 1개의 연구가설을 선정하였다.

[표 3-2] 조직적 환경요인 관련 연구가설

조직적환경요인은 1인지식서비스조직성공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3	▪ 기술지수는 1인지식서비스조직성공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 제 3 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절은 서울시 기초자치구의 비교연구에서 수행된 연구결과이다. 25개 자치구가 본 프로젝트에서 선택되었다.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정의, 다양한 틀이 데이터를 선택할 때 고려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1인지식서비스조직의 성공도에 관련된 요인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세 가지 핵심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서울시 내의 1인지식서비스조직 분포 둘째, 1인지식서비스조직의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무엇인가? 셋째, 1인지식서비스조직의 분포가 지역발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이다.

이 질문에 답을 하기위해 우리는 통계 자료를 활용하였다. 기술, 재능, 관용뿐 아니라 지역의 질과 기업가 정신 등에 관한 지표는 데이터를 논할 때 언급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통계자료의 제안점에 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자료를 인지하고 있는 것이 어떤 현상의 특성을 제시하고 서로 다른 변수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훌륭한 수단이된다. 이러한 통계자료에 의해 제시된 큰 그림이 없이 지나치기 쉬운 분야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자료만을 활용해서 인과관계를 확인한 것은 쉽지 않다. 통계자료는 인과관계의 최종 답변을 제시하지 못한다. 왜 A가 B의 원인이 되고, A가 C의 영향이 되어지는가와 같은 종류의 질문에는 정량적인 데이터만을 가지고 답변하기가 쉽지 않다. 대신 이러한 정보는 인터뷰와 같은 정성적 방법을 통하여 수집되어야만 한다. 다음으로 정성적, 정량적 방법을 통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서로 다른 현상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프레임을 제공해준다. 본 연구도 두 가지의 데이터 수집방법을 사용한다. 본 연구는 1인지식서비스조직의 일반적인 모습과 1인지식서비스조직의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정량적 분석이다. 일반적인 사진을 제시함과 더불어 본 연구는 2006년도에 수행되어진 인터뷰가 추가적으로 제시될 것이다. 다음 분석의 핵심은 기술, 재능, 관

용, 삶의 질, 기업가 정신의 지표의 선택이다. 몇몇 경우에 관해 우리는 기술과 재능에 관하여 Florida의 변수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변수를 유럽적 상황에 적용하기 위하여 정의를 수정하였다. 예컨대 우리는 기술집약적인 기술서비스를 하이테크 인덱스에 추가하였다. 특히 관용지수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제공했는데, Florida의 관용성 측정지수인 동성애 지수는 유럽의 상황에서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유는 유럽에서 동성애자가 되는 상황은 미국에서 만큼 논란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게다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도 쉽지 않다. 대신 우리는 통합지수 즉, 외국 사람과 서울시 고용률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는 통합 측정수단인 통합 지수를 개발하였다.

일반적으로 미국과 유럽의 환경 간의 차이점에 대해 상당한 고려를 하였다. 1인지식서비스조직이론은 미국 내에서 개발되었다. 미국은 대규모 도시의 비율이 높고 서울시 보다 도시지역을 많이 가지고 있다. 게다가 미국 인구는 유럽보다 유동적이다.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이러한 결과는 도시 간의 경쟁을 더욱 더 유도하게 될 것이다. 서울시만이 대규모 도시로 간주되어 지는 세 개의 도시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서울시의 노동시장 지역을 분석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구체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25개 노동시장 지역의 2002년도 10만명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 데이터를 제시하였다.

## 제 4 장 연구 결과

### 제 1 절 1인지식서비스조직 분포 관련 연구결과

[표 4-1] 자치구별 인구분포

구 명칭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강남구	536031	539333	547775	564658	569176
강동구	479270	473411	466664	465203	469021
강북구	362094	362275	355334	351624	348702
강서구	539673	544762	557373	559845	566495
관악구	526971	535688	537235	545995	550766
광진구	388659	384681	380480	381540	386367
구로구	419438	424725	427119	436786	445095
금천구	267355	266047	263936	263989	264323
노원구	633934	630555	624855	621676	621192
도봉구	378166	383611	383448	379755	378559
동대문구	386814	383896	386280	385712	385825
동작구	413204	414199	414668	414978	414839
마포구	383629	388111	393155	397049	400392
서대문구	361754	358186	355934	356652	357174
서초구	400220	406752	406875	413970	411951
성동구	343929	343992	342691	340895	341620
성북구	456535	455041	467308	478511	477358
송파구	623267	608439	610023	612527	630691
양천구	489257	497642	502788	505606	508566
영등포구	410952	415889	421327	429816	439151
용산구	240723	239070	240077	243033	248362
은평구	476843	480320	473456	467940	463473
종로구	181441	178574	173861	172690	173843

정치 토론과 언론에서 1인지식서비스조직은 얼굴 없는 히치하이커. 산악 자전거를 타는 사람, 여가 시간에 롤러블레이드를 타는 사람과 같은 이미

지로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기획당국은 이러한 문화적 상의 개발이 1인지식서비스조직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Florida의 연구에 따르면 1인지식서비스조직은 북미 지역의 고용인구 가운데 대략 3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대규모 집단이 카페라떼를 마시면서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하는, 오페라 하우스에 방문하는 집단으로 생각하는 것은 너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대규모의 집단이 되기 위해서는 그 같은 소수 핵심으로 나눌 수 없는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서울시 내의 1인지식서비스조직의 분포에 대한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는 서울시의 1인지식서비스조직을 통계데이터에 입각하여 이러한 데이터의 제약점을 감안하여 현재 모습을 제시할 것이다.

Florida와 Florida의 지지자들에게 1인지식서비스조직은 경제성장의 핵심으로 간주된다. 창의적 근로자는 교육수준 뿐만 아니라 교육수준에 범주되어지지 않은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내포하고 있고, 그들이 고용된 산업 뿐 아니라 그들의 직업 기능에 따른 다양한 사람들을 내포하고 있다. 1인지식서비스조직이론에 따라 1인지식서비스조직의 사람을 유치하고 유지하는 능력은 지역 간 경쟁에서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재능은 지역 내의 잠재적 성장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만일 노동력이 이러한 고도화된 지식기반 생산의 필요성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전략적으로 생산을 개발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재능과 1인지식서비스조직의 지역적 편중 현상은 향후 경제성장을 분석할 때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1인지식서비스조직은 한 개의 집단으로 간주되어 진다. 그러나 이 개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대규모 그룹 내의 서로 다른 하위 그룹 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특정한 역학관계를 이해하는데 필요하며, 자세한 분석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1인지식서비스조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1인지식서비스조직의 지역적 분포를 이해하고 지역발전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1인지식서비스조직을 창의성 코어와 창의성 전문가로 나누어 설명할 것이다. 1인지식서비스조직의 종사자는 창조적 과정의 완전히 종사하는 사람들로 이해될 수 있다. 그들은 쉽게 이전하거나 일반적으로 광범위하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새로운 형태나 디자인을 만들어낸다. 또한 그들은 대규모 지식집약적 산업에 종사한다. 창의성 전문가 집단은 창의적 문제해결에 관여하고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합적인 지식을 요구하고 있다. 창의성 코어는 가장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직업군을 포함하고 있다. 건축가와 연구자로 구성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지식을 일상생활에서 창출하는 집단의 사람들로 간주된다. 대조적으로 창조적 전문가란 관리직업, 법률직업에 종사하는 창의적 전문가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지식 창출에 일부 관여하지만 그들 업무의 상당 부분은 정형화된 사례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시 자치구내 두 집단의 분포는 아래와 같다.

[표 4-2] 서울시 자치구별 1인지식서비스조직 핵심집단 분포

순 위	지역구	분포수	순 위	지역구	분포수
1	강남구	479458	14	노원구	59369
2	서초구	258970	15	강서구	57906
3	영등포구	176538	16	양천구	56845
4	중구	150921	17	성북구	55995
5	송파구	140506	18	광진구	51843
6	종로구	111669	19	서대문구	45704
7	마포구	106175	20	성동구	45303
8	구로구	99575	21	강동구	43750
9	동작구	76804	22	은평구	30466
10	금천구	70655	23	도봉구	25390
11	용산구	62514	24	중랑구	25320
12	관악구	61001	25	강북구	21663
13	동대문구	59434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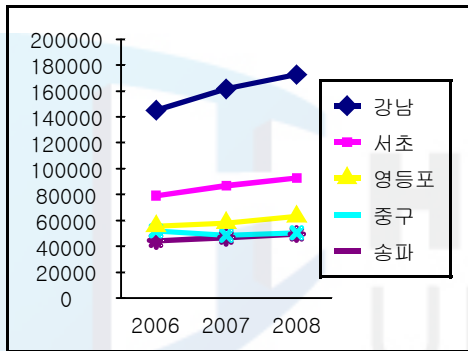
2008년 1인지식서비스조직 종사자 수는 강남구가 479,458명으로 가장 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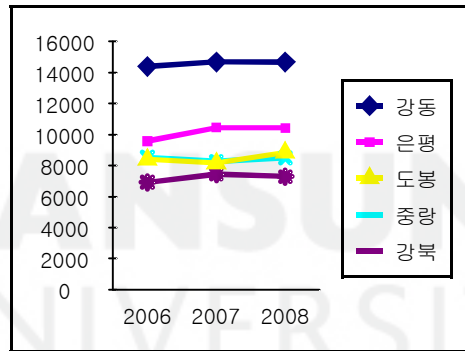
계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서초구 258,970명, 영등포구 176,538명, 중구 150,921명의 순으로 1인지식서비스조직 핵심집단 종사자의 분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1인지식서비스조직 핵심 집단 상·하위 5개 자치구

상위 5개 자치구			하위 5개 자치구		
순위	지자체명	핵심집단	순위	지자체명	핵심집단
1	강남	479,458	21	강동	43,750
2	서초	258,970	22	은평	30,466
3	영등포	176,538	23	도봉	25,390
4	중구	150,921	24	중랑	25,320
5	송파	140,506	25	강북	21,663



<상위 5개 자치구 연도별 추이>



<하위 5개 자치구 연도별 추이>

최근 3년간의 1인지식서비스조직 핵심집단 분포에 관한 분석결과 강남구가 479,458명으로 다른 자치구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서초구, 영등포구, 중구, 송파구의 순으로 1인지식서비스조직 핵심집단의 분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북구, 중랑구, 도봉구, 은평구, 강동구의 순서로 1인지식서비스조직 핵심집단의 분포가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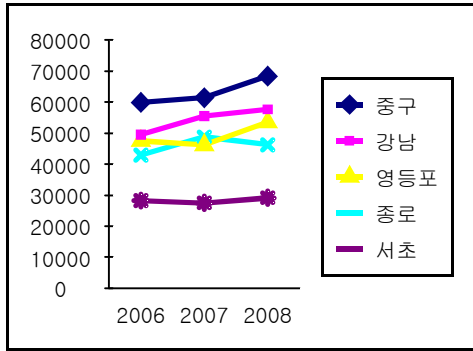
[표 4-4] 자치구별 1인지식서비스조직 전문가 계층 분포

순 위	지역구	분포수	순 위	지역구	분포수
1	중구	68373	14	양천구	12192
2	강남구	57652	15	은평구	11890
3	영등포구	53538	16	구로구	11359
4	종로구	46266	17	용산구	11071
5	서초구	29149	18	성북구	10964
6	송파구	25417	19	광진구	10536
7	서대문구	19141	20	성동구	10000
8	마포구	17506	21	관악구	9670
9	노원구	15966	22	강북구	9532
10	동대문구	15200	23	중랑구	8560
11	강동구	14271	24	도봉구	7006
12	동작구	13269	25	금천구	5354
13	강서구	12980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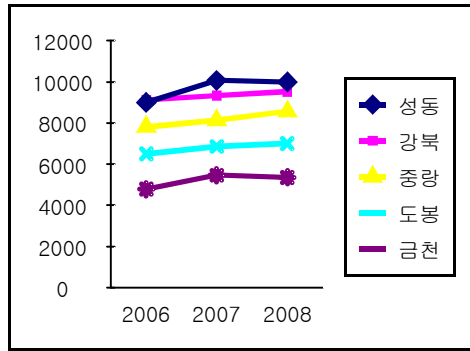
2008년 1인지식서비스조직 전문가 집단 종사자 수는 강남구가 479,458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서초구 258,970명, 영등포구 176,538명, 중구 150,921명의 순으로 1인지식서비스조직 전문가 집단 종사자의 분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1인지식서비스조직 전문가 집단 상·하위 5개 자치구

상위 5개 자치구			하위 5개 자치구		
순위	지자체명	1인지식서비스조직 전문가	순위	지자체명	1인지식서비스조직 전문가
1	중구	189,716	21	성동	29,081
2	강남	162,751	22	강북	27,997
3	영동포	147,263	23	중랑	24,503
4	종로	138,021	24	도봉	20,366
5	서초	84,882	25	금천	15,606



<상위 5개 자치구 연도별 추이>



<하위 5개 자치구 연도별 추이>

최근 3년간의 1인지식서비스조직 전문가집단 분포에 관한 분석결과 중구가 189,716명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강남구, 영등포구, 종로구, 서초구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금천구, 도봉구, 중랑구, 강북구, 성동구의 순서로 1인지식서비스조직 전문가집단의 분포가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1인지식서비스조직과 비1인지식서비스조직 간의 차이점을 알아보기로 한다. 1장에서 주장한대로 창의적인 집단과 창의적이지 않은 집단 간의 차이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비창의적 집단은 부적합하고 잘못 이해될 수 있다. 어떤 범주에 속하고 있는지, 어떤 그룹의 사람이 Florida의 1인지식서비스조직에 부합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표 4-6] 자치구별 외국인 거주현황

구 명칭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강남구	6866	7694	8218
강동구	2605	3443	4475
강북구	2074	2634	3224
강서구	3713	4900	6071
관악구	7215	10778	15195
광진구	4867	7098	9795
구로구	10714	16954	24553

금천구	7034	10746	15215
노원구	2852	3583	4439
도봉구	1919	2221	2584
동대문구	5170	6852	9404
동작구	4187	6396	8872
마포구	4991	6466	7742
서대문구	6771	7632	8599
서초구	5139	5704	5982
성동구	4947	6458	8085
성북구	4429	5668	7385
송파구	4183	5522	6815
양천구	3033	3889	4916
영등포구	12941	21118	30973
용산구	9817	10998	12530
은평구	2705	3360	4277
종로구	4546	5897	7997

1인지식서비스조직의 인종적 다양성에서 1인지식서비스조직은 대부분 중국 태생의 인구로 구성되어 있다. 실제로 1인지식서비스조직은 비1인지식서비스조직보다 직업면에서 더 큰 규모의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게다가 1인지식서비스조직과 비창의성 직업집단 간의 두드러진 차이점은 1인지식서비스조직은 동남아 태생의 인구규모가 작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1인지식서비스조직이 국제적인 관점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서 좀 더 이동적이라는 것을 나타내며 놀라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동남아집단은 교육수준이 낮고 그들의 그러한 교육적 기술로 인하여 고용이 적게되는 편이다. 그러므로 비창의적 집단 내의 인종 분포가 높은 편이다. 북미 시장은 언어, 문화, 교육이 이러한 개별적 근로자의 지속성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데이터는 동남아 국가 간의 유사성이 있기는 하지만 1인지식서비스조직과 비1인지식서비스조직과 비교하여 볼 때 1인지식서비스조직의 보편성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비1인지식서비스조직의 높은 분포는 동남아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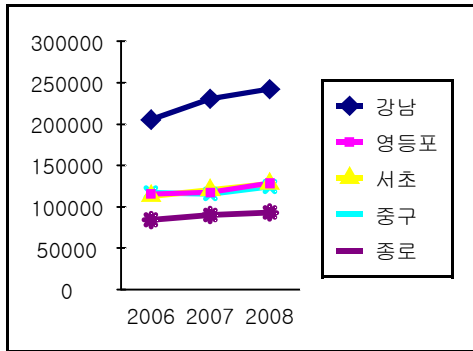
[표 4-7] 자치구별 1인지식서비스조직 분포

순 위	지역구	분포수	순 위	지역구	분포수
1	강남구	242241	14	금천구	35853
2	영등포구	128501	15	강서구	35122
3	서초구	127973	16	관악구	34187
4	중구	124481	17	용산구	34130
5	종로구	92897	18	광진구	34045
6	송파구	81609	19	성북구	33493
7	마포구	66681	20	강동구	32150
8	구로구	51545	21	성동구	30213
9	동작구	45389	22	은평구	24599
10	동대문구	39330	23	중랑구	19646
11	노원구	39171	24	강북구	19308
12	서대문구	37184	25	도봉구	17599
13	양천구	36340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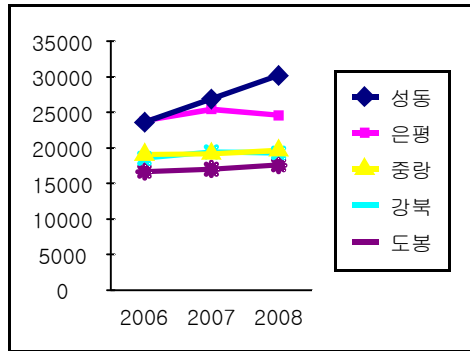
2008년 1인지식서비스조직 전체 종사자 수는 강남구가 242,241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영등포구 361,367명, 서초구 360,957명, 중구 356,967명의 순으로 1인지식서비스조직의 분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1인지식서비스조직 상·하위 5개 자치구

상위 5개 자치구			하위 5개 자치구		
순위	지자체명	종사자	순위	지자체명	종사자
1	강남구	678,029	21	성동구	80,735
2	영등포구	361,367	22	은평구	73,882
3	서초구	360,957	23	중랑구	57,911
4	중구	356,967	24	강북구	57,345
5	종로구	266,885	25	도봉구	51,322



<상위 5개 자치구 연도별 추이>



<하위 5개 자치구 연도별 추이>

최근 3년간(2006~2008년)의 전반적인 1인지식서비스조직 전체 종사자의 분포에 관한 분석결과, 강남구가 678,029명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영등포구, 서초구, 중구, 종로구 순으로 나타났으며,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은평구, 성동구의 순서로 1인지식서비스조직의 분포가 낮게 나타났다. 상위 5개 자치구 중 강남구는 다른 자치구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5개 자치구 중 성동구는 1인지식서비스조직의 분포가 증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내의 1인지식서비스조직의 지정학적 분포는 [표 4-8]로부터 볼 때 명확하다. 이 지도는 1인지식서비스조직의 가장 높은 순위는 서울시의 강남구에서 주로 발견된다.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영등포만이 서울시의 국가 평균에 부합되는 1.0 이상의 순위를 가지고 있다. 1인지식서비스조직은 서울시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지도는 비창의성 강북지역과 창의적으로 밀접해 있는 강남지역 간의 분명한 차이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강남지역과 강북지역 사이의 창의성과 비창의성에 관련된 구분은 가능하지 않고 비창의적 강북 지역은 지도에 나타나지 않는다.

[표 4-9] 자치구별 인적자원 분포

구 명칭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강남구	496490	496490	544891	542353
강동구	99196	99196	98252	101977
강북구	62250	62250	62613	62371
강서구	137524	137524	137258	133726
관악구	99039	99039	95624	95568
광진구	98087	98087	96456	100781
구로구	138021	138021	143568	142128
금천구	114525	114525	124704	135480
노원구	94896	94896	98207	96599
도봉구	59836	59836	59508	58684
동대문구	121812	121812	124505	123107
동작구	90029	90029	91976	98171
마포구	135502	135502	153655	160420
서대문구	86976	86976	85779	88601
서초구	287705	287705	312911	320079
성동구	109734	109734	114087	114274
성북구	87094	87094	85261	86414
송파구	213643	213643	215523	215629
양천구	100215	100215	98933	97609
영등포구	258937	258937	261492	272086
용산구	112603	112603	111652	113280
은평구	73841	73841	72411	69800
종로구	215442	215442	222443	224836
중구	357458	357458	352436	360856
중랑구	81375	81375	78865	79837

여러 형태로 인적자원의 분포는 1인지식서비스조직의 분포와 유사하다. 재능을 독립변수로 사용하는 것은 그 지역의 잠재 발전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만일 노동력이 고도화된 지식기반 생산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전략적으로 지역 구조에 집중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런 단계적 변화와 지역 성장 정책의 조정이 항상 환영할만한 일이지는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또한 지역성장은 현지의 노동력이 이러한 전략적 계획에 참여할 때 가장

성공적이다.

대규모의 대학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성북구, 노원구, 서대문구는 모두 잘 알려진 대규모의 대학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또한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의 비율과 명백히 차이가 난다. 강남구와 서초구가 박사 참여자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대체적으로 이 같은 경우는 대학이 이 두 지역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증명하고 있다. 영등포구,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모두 다양한 산업 내에서 서로 다른 종류의 생산지역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에 서대문구, 성북구는 현대적으로 대학 및 대학활동에 좀 더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의 비율이 강남지역이 가장 높고 도봉구 지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인재의 집중을 피하기 위해 정치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4년제 대학과 2년제 대학이 비도심지역으로 확대되는 것은 이 지역 내의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인적자원을 유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추가적으로 학생 숫자도 증가하고 있다. Wikhall(2001)은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도심소재 대학이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한 배출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들의 교육을 마무리하였을 때 이주하는 경향이 높는데 그 이유는 좀 더 도심환경으로 이주하고 싶어 하는 원인과 비도심지역 내의 고용기회가 적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노동력의 교육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분권화된 정책이 요구된다. 결과적으로 정치적 조치없이 우리는 도심 및 비도심지역 내의 교육수준의 상당한 격차를 예견할 수 있다.

명백히 이는 대학의 활동으로 대학활동과 관련된 산업에 의한 것이다. 대규모 대학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은 첨단 산업 내의 교육수준이 고려된다면 순위에서 최상위에 속한다. 이는 대부분의 지식집약적인 생산은 대규모 대학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시 내의 4년제 대학의 분권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후 Lundquist (2000)은 대학의 그러한 위치와 신규기업의 창업 간에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밝혀냈다.

비첨단 생산기업 내의 교육수준의 상당한 변화가 93년 이후 이루어졌다. 이는 점점 더 많은 학사학위를 보유한 사람의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교육 연구기관의 분권화에 요인이 된다는 Wikhall(2001)의 연구와 관련이 있다. 잠정적인 결론은 서울시는 지식집약 국가로서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고, 첨단 산업 내의 대규모 변화는 이 같은 산업에 고용된 제한적인 사람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약간의 수치 상의 변화가 있음에도 일반적으로 그 그림은 분명하게 나타난다.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고용된 사람의 비율은 일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특히 첨단 산업에서 증가하고 있다.

예컨대 데이터는 가장 큰 비율의 고학력 노동자가 창의성 코어 집단에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창의성 코어 집단의 상대적 비율이 20%부터 40%까지 학사학위 이상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이는 교육과 직업이라는 두 가지 상이한 변수 사이에 오차의 조합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건축가와 엔지니어와 같은 직업은 그들의 직업을 단순히 이론적인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실무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획득한다. 이는 다시 Glaeser(2004)의 비판과 부합된다. 그는 1인지식서비스조직과 재능은 큰 틀에서 같은 개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1인지식서비스조직의 상당한 비율이 Glaeser가 그의 핵심적인 변수로 사용하는 학사학위 이상 공식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재능은 회귀분석을 사용할 때 두드러진 효과를 나타내지만 아직도 창의성 코어집단의 40%이상이 재능변수 하나만으로 설명되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추가적인 독립변수를 설정함으로써 예컨대 직업 또는 좀 더 광범위한 교육수준 개념이 지역경제 발전과 1인지식서비스조직을 설명하는데 좀 더 중요하다. 이는 이 두 개의 변수가 서울시 환경에서 대체적으로 서로 대리

변수로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시 내의 1인지식서비스조직의 분포를 결론적으로 보면 두 가지 핵심적인 사항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1인지식서비스조직은 서울시 내의 고학력 집단의 상당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고학력 집단만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창의성 집단은 학사학위 이하의 교육수준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가장 혁신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지는 창의성 코어집단 내에서 상당한 부분이 학사학위에 준하는 공식적인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는 중요한 연구결과인데 이는 1인지식서비스조직이 인적자본과 동일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중요한 연구결과인 것이다. 둘째, 1인지식서비스조직의 분포는 대규모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4년제 대학과 2년제 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곳에 집중되어 있다.

서울시 내의 1인지식서비스조직의 지역적 분포를 살펴본 후 개인적 환경요인과 기업적 환경요인에 관련된 지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 두 가지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기술, 재능, 관용 간의 관계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개인적 환경요인에 관한 지표를 제시하고, 다음으로 기업적 환경요인에 대한 지표를 제시하고, 끝으로 이 두가지 변수와 서울시의 지역발전 간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 제2절 1인지식서비스조직 성공과 개인적 환경요인 관련 연구결과

### 1. 관용성 지표 관련 연구결과

#### 1) 보헤미안지수 관련 연구 결과

[표 4-10] 자치구별 보헤미안 지수

자치구	보헤미안	보헤미안비율
강남구	11,978	0.021213
강동구	3,207	0.006894
강북구	2,476	0.007042
강서구	3,281	0.005861
관악구	4,245	0.007775
광진구	3,625	0.009501
구로구	2,674	0.006122
금천구	1,895	0.007178
노원구	2,800	0.004504
도봉구	1,754	0.004619
동대문구	2,524	0.006544
동작구	2,727	0.006571
마포구	4,215	0.010616
서대문구	2,383	0.006682
서초구	5,899	0.01425
성동구	2,222	0.006518
성북구	2,459	0.005139
송파구	6,757	0.011031
양천구	4,302	0.008509
영등포구	11,790	0.02743
용산구	2,267	0.009328
은평구	2,281	0.004875
종로구	5,489	0.031785
중구	5,674	0.041614
중랑구	2,580	0.006008

[표 4-10]은 서울시의 지역 분포에서 과점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보헤미안 인구의 집중과 관련하여 세 개 지역 강남지역, 영등포지역, 송파구지역이 지수 1 이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다른 지수에서 보여지지 않는 지역

지수이다. 주된 이유는 그 지역의 위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세 지역 모두 대규모 지역으로 창의성 분위기를 제공해주고 스타일과 이미지를 개발하는 젊은 아티스트에게 중요한 분위기를 제공해 준다. 이 세 지역은 음악, 박물관, 젊은 인구에 있어서 높은 순위를 보여주고 따라서 상당히 생동감 있는 지역사회를 나타내 주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내의 보헤미안의 지역적 분포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도 있을 수 있다. 그 같은 영향 요인은 이러한 예술 상품을 구매하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 또는 예술을 가르치는 교육기관 및 스튜디오에 적합한 시설의 저렴한 비용과 같은 요인들이다. 이 같은 요인에 대한 답변은 정성적 방법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보헤미안 지수의 존재여부는 우리가 관용성 지표로 사용하는 4개의 지표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외국인에 대한 개방적 태도, 외국인에 대한 노동시장의 통합이 또 다른 중요한 관용성 지표들이다.

어떤 지역은 어느 지표에서는 낮은 수치를 보여주지만 어떤 다른 지표에서는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산업생산 기지였던 금천구와 도봉구 같은 지역은 보헤미안의 집중도가 상당히 낮은 편이다. 이는 이러한 지역이 자동차, 탄광, 제조와 같은 전통적인 산업 구조로 구성되어 보헤미안 인구에 대한 매력도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 2) 개방성 지수 관련 연구결과

[표 4-11] 자치구별 외국인 지수

자치구	외국인수	외국인비율
강남구	7694	0.013626
강동구	3443	0.007401
강북구	2634	0.007491
강서구	4900	0.008752
관악구	10778	0.01974

광진구	7098	0.018604
구로구	16954	0.038815
금천구	10746	0.040706
노원구	3583	0.005763
도봉구	2221	0.005849
동대문구	6852	0.017765
동작구	6396	0.015413
마포구	6466	0.016285
서대문구	7632	0.021399
서초구	5704	0.013779
성동구	6458	0.018944
성북구	5668	0.011845
송파구	5522	0.009015
양천구	3889	0.007692
영등포구	21118	0.049133
용산구	10998	0.045253
은평구	3360	0.00718
종로구	5897	0.034148
중구	5699	0.041797
중랑구	3326	0.007746

서로 다른 규범에 의해 살고 있는 서로 다른 사람에 대한 개방성은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는 외국 태생 인구를 다양성에 대한 관용의 대리변수로 조사하였다. 우리는 두 가지 상이한 지표를 사용하였다. 개방성 1은 전체 인구 가운데 비서구인 외국인 인구의 비율로 측정하였다. 개방성 2지수는 전체 인구에 대한 모든 외국인의 비율로 측정하였다. 서방과 비서방의 인종적 범주는 첨부 1에 제시되어 있다. 개방성 1과 개방성 2 지표에서 높은 숫자 즉, 외국 출생 인구의 높은 비율은 그 지역의 개방적 환경에 대한 긍정적 지표로 보여진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는 통합과 수용이라는 관점에서 관용과 관련이 없는 것이다. 외국 인종 집단의 밀집은 갈등을 초래할 수 있고 그 도시 지역의 몰락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개방성 1지표와 개방성 2지표에 대한 비판적 언급과 관용성과 개방성에 관련된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

개방성 1지표가 전체 인구에 대한 비서구인 인구의 비율로 측정되었다. 이 숫자는 영등포 지역이 평균 비율의 두 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을 보여주고 있다. 구로구, 용산구, 관악구 지역이 그 뒤를 따르고 있지만 적어도 2% 이상 낮은 숫자를 보여주고 있다.

개방성 1지수는 비서구 태생 인구가 전반적으로 서울시 태생 인구에 비해 문화적으로 서구태생 외국인 보다 다르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비서구인 인구의 높은 비율은 따라서 더 높은 관용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비서구인 만을 조사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본 연구는 개방성 2지수를 만들어서 서구 또는 비서구 태생을 막론한 모든 외국 태생 인구의 비율을 측정하였다. 모든 외국 태생 인구의 비율을 조사한 주된 이유는 정치적 망명 등은 자신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행위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방성 1지수는 외국 태생 인구의 선택보다는 그들의 국가의 진입에 영향을 받는다.

대규모 지역이 몇몇 적은 지역과 함께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 지역은 지역 내의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인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들이다. 주목할 만한 지역은 관악구 지역으로 인구에 있어서 네 번째이지만 개방성 1지수에서는 11위, 개방성 2지수에서는 5위로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관악구 지역은 서방인구 비율이 높지만 이러한 개방성 지수 1에 있어서 관용성이 낮고 개방성 2지수에 있어서 관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국 태생 인구의 높은 비율보다 좀 더 과용적인 것이 있다. 외국 태생 인구의 비율로 관용을 측정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외국 태생 인구의 밀집은 지역차별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총인구 가운데 외국 태생 인구의 비율과 총 고용인구 가운데 외국인 고용인구 간의 관계를 토대로 통합지수를 만들었다. 두 변수를 서로 조사함으로써 이러한 외국 태생 인구가 노동시장에 얼마나 통합되는지에 대한 지표를 확보할 수 있다. 이는 외국과 국내 태생인구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보이지 않는 그림을 보여준다. 즉, 통합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같은 측정

수단은 Florida의 1인지식서비스조직 지표의 중요한 대리변수가 된다.

본 연구는 이런 관용적이 지역이 외국인들이 노동시장에 통합되는 것에 관용적이라고 믿는다. 반면 덜 관용적인 지역은 이러한 외국인의 노동시장으로의 편입 비율이 낮을 것이다.

개방성 지수를 요약하면 보헤미안 지수는 세 개의 지역에서 보헤미안 활동의 집중을 나타내고 강남구 지역이 보헤미안 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강남구 지역을 제외하고 계산을 다시하면 3개 지역이 아닌 11개 지역이 평균 보헤미안 지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개방성 지수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큰 지역은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관용성 지수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본 연구는 통합 지수를 도입하였다. 이 지수는 좀 더 다양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인구 간의 연결과 지수 간의 순위 사이에는 비교적 낮은 관계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역의 규모는 더 이상 높은 순위와 관련이 없고 규모가 적은 지역이 더 이상 낮은 순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 2. 지역의 질 지표 관련 연구결과

### 1) 공공서비스지수관련 연구결과

[표 4-12] 자치구별 공공지수

자치구	공공지수	자치구	공공지수
강남구	0.094247	서대문구	0.107854
강동구	0.032226	서초구	0.176644
강북구	0.094659	성동구	0.120418
강서구	0.109964	성북구	0.087351
관악구	0.156587	송파구	0.051211
광진구	0.149935	양천구	0.061047
구로구	0.134011	영등포구	0.185106
금천구	0.253686	용산구	0.187751

노원구	0.136121	은평구	0.061972
도봉구	0.187274	종로구	0.069781
동대문구	0.285407	중구	0.115578
동작구	0.187436	중랑구	0.16438
마포구	0.220957	-	-

[표 4-12]에서 주목할 점은 7% 이상의 점수가 성동구, 광진구, 종로구 지역에 나뉘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들 간의 간격이 41%에 달하고 있다. 성동구와 광진구 지역 사이의 차이는 11%로 상당한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한편으로 우리에게 상대적으로 강서구, 구로구 지역에서 공공서비스가 낮지만 다른 한편으로 성동구지역이 높은 공공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PI를 조사함으로써 성동구 지역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점수의 하락은 나머지 지역 사이에서 나타났지만 성동구 지역과 구로구 지역 사이의 커다란 격차가 나타났다. 공공서비스의 구성요인을 조사한 결과 성북구 지역은 대학 내의 높은 고용비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명백했다. 서대문구와 같은 지역에서는 대규모 대학이 이러한 PPI 산업 내에 고용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는 우리에게 PPI가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준다. 법률이 복지서비스의 최소한의 공급을 확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 유치원 그리고 노인 인구에 대한 기본 서비스에 대한 차이가 미미하다. 그러나 기업들은 대학, 병원과 같은 활동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이유는 이러한 기관들이 모든 지역에 위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끝으로 높은 PPI는 그 지역이 민간부분에 의해 낮게 제공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고려해야 할 또 다른 문제는 이 지표는 경제규모에 영향을 덜 받는다는 것이다. 기초 공공활동은 지역 내의 시민 숫자와 관계없이 실행되어야만 한다. 인구가 크면 클수록 행정부 내의 효율성을 개선하기가 쉽다. 지역 내의 인구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공공부분의 효율성을 높이기가 쉬울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지표는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 낮은 점수를 받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이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끝으로 PPI는 제공 되어지는 서비스의 범위와 품질의 효율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PPI를 분석한 결과는 지난 9년 간 지역 내의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993년 공공부분에 고용된 사람들을 가진 지역들이 같은 기간 내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고려한다면 성북구, 서대문구 지역이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상당한 변화를 목격하였다. 일반적으로 제1교육기관의 커다란 증가를 가져왔고 성북구, 서대문구 지역에서 거의 두 배 이상의 증가를 가져왔다. 한편 공중보건 활동과 사회보장 활동은 감소하였는데 이는 공공부분과 교육 특히 초등교육에 있어 정부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지식 집중적인 사회로 진입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 지식 집중적 사회를 건설하고 공중 보건과 같은 복지시스템의 기본 비용을 삭감하는 것은 만일 공공서비스가 중요하다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1인지식서비스조직에 대한 매력도가 크게 감소할 것이다.

## 2) 문화기회지수(COI) 관련 연구 결과

[표 4-13] 자치구별 문화기회지수

자치구	공공지수	자치구	공공지수
강남구	0.007826	서대문구	0.016214
강동구	0.007826	서초구	0.023154
강북구	0.014107	성동구	0.020198
강서구	0.018613	성북구	0.012981
관악구	0.031107	송파구	0.009684
광진구	0.018464	양천구	0.013169
구로구	0.031239	영등포구	0.023082
금천구	0.026859	용산구	0.038015
노원구	0.0367	은평구	0.01086
도봉구	0.027554	종로구	0.009617
동대문구	0.026895	중구	0.028716
동작구	0.029842	중랑구	0.029271
마포구	0.022844	-	-

용산구 지역이 문화산업 내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대규모 지역이 지역 내의 문화활동을 선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대규모 지역은 많은 관광객들의 방문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공급의 가장 큰 시장이 되고 있다.

나머지 지역에 대해 살펴보면 용산구, 노원구, 구로구, 관악구 지역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이 지역들 모두 스포츠 활동에 관련된 COI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산업 내의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직업의 증가가 눈에 띄고 용산구, 노원구 지역과 같은 대규모 지역은 대략 40%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문화소비 경제로 서서히 접근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징후 가운데 하나로 보여지고 있다.

미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Florida의 연구에 따르면 1인지식서비스조직은 성장을 일으키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론적으로 개인적 환경요인 지표가(관용과 지역의 질) 1인지식서비스조직의 지역적 분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4]은 1인지식서비스조직과 관련된 독립변수 간의 관계를 도식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표 4-14] 1인지식서비스조직 핵심집단 상관관계분석

		창의코어	기술지수	보헤미안지수	외국인지수	공공지수	문화지수
창의코어	Pearson Correlation	1					
	Sig. (2-tailed) N	.25					
기술지수	Pearson Correlation	.272	1				
	Sig. (2-tailed) N	.188 .25	.25				
보헤미안지수	Pearson Correlation	-.428*	.220	1			
	Sig. (2-tailed) N	.033 .25	.290 .25	.25			
외국인지수	Pearson Correlation	-.265	.497*	.551**	1		
	Sig. (2-tailed) N	.201 .25	.012 .25	.004 .25	.25		
공공지수	Pearson Correlation	.511**	-.634**	-.575**	-.605**	1	
	Sig. (2-tailed) N	.009 .25	.001 .25	.003 .25	.001 .25	.25	
문화지수	Pearson Correlation	.082	-.633**	-.606**	-.660**	.692**	1
	Sig. (2-tailed) N	.697 .25	.001 .25	.001 .25	.000 .25	.000 .25	.25

1인지식서비스조직 핵심 집단은 보헤미안지수, 공공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공지수와 상관관계가 0.51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보헤미안 지수와 상관관계가 -0.428로 그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이 모델이 정확하다면 1인지식서비스조직의 지역적 분포는 관용과 지역의 질에 영향을 받는다. 4장에서 관용성 지표의 분포가 언급된 바 있다. 4장에서 가장 규모가 큰 지역이 보헤미안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규모 도시가 대규모 외국 태생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조적으로 대규모 지역은 통합지수에 있어서 외국 태생과 국내 태생 간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최초의 개방형 지표의 연구결과와 부합하지 않는다.

추가적으로 장소의 질에 관한 대리변수를 살펴보았는데 지역 간의 차이가 PPI와 관련하여 비교적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러한 COI와 관련

하여 차이는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헤미안과 개방성 1, 개방성 2 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합지수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 표는 처음 세 가지 변수와 창의성 전문가 집단, 창의성 코어 집단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

창의성 코어와 PPI, COI 사이의 상관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반면 창의성 전문가와 1인지식서비스조직 그리고 COI 간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의성 코어집단과 창의성 전문가 집단 사이의 차이는 COI 와 PPI와 관련된 분석을 함으로써만 가능하다. 두 집단 간의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PPI와 1인지식서비스 조직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관관계는 1인지식서비스조직의 집중도와 통합 기술을 제외한 지역의 질의 지표 간에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행하게도 개인적 환경요인에 대한 변수들은 상당한 중복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6개의 변수를 사용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대신 아래의 모델이 사용되었고 6개 변수 가운데 3개의 변수가 포함되었다.

명백히 6개의 변수 가운데 3개 변수만의 사용은 여기서 측정된 개인적 환경변수와 1인지식서비스조직의 분포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정확하지 못한 결과를 제공하지만 이러한 3개 변수의 제거는 우리에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와 변수 간의 관계와 유의미성을 보여주고 있다.

[표 4-15] 전반적 1인지식서비스조직 회귀분석

모델요약

모델	R	R제곱	수정된 R제곱	표준추정오차
1	.831(a)	.691	.587	33567.128

a 독립변수 : (Constant), 공공지수, 보헤미안지수, 기술지수, 외국인지수, 문화지수

분산분석

모델	제곱의 합	자유도	제곱평균	F	유의확률	
1	회귀값	258779547.6	6	543129925	6.695	.001(a)
	잔차	281537604.7	18	126752089		
	합계	540317152.2	24			

a 독립변수 : (Constant), 공공지수, 보헤미안지수, 기술지수, 외국인지수, 문화지수

b 종속변수 1인지식서비스조직

계수a

모델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값		
1	(constant)	38142.766	68424.835		.557	.584
	기술지수	1040804.3	68296.681	.564	2.826	.011
	보헤미안지수	1333115.3	67223.572	.549	2.853	.011
	외국인지수	1514960.2	91772.632	-.399	-1.913	.072
	공공지수	14054.937	78802.113	.017	.079	.938
	문화지수	1325913.0	306588.95	-.231	-1.015	.324

a 종속변수 : 1인지식서비스조직

전반적인 1인지식서비스조직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모형은 58.7%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비교적 높은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으며, 6가지 독립변수 가운데 기술지수, 보헤미안, 외국인 지수만이 1인지식서비스조직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모델 1의 전반적인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수정된 R의 제곱이 이 모델이 전체 모델의 58.7%를 설명해 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중복성 통계가 인구 1000명당 보헤미안 지수와 개방성 1 변수 간의 다수 간의 중복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성이 있지만 심각하지 않은 관계로 이 모델은 채택이 가능하다.

추가적으로 이변량 상관관계는 1000명당 보헤미안 지수와 개방성 1 지수간에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모델에 사용된 변수들은 최적의 적합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모델에 포함된 변수들은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개인적 환경요인과 서울시의 1인지식서비스조직 간의 관계는

$$Y=14.324+0.549X1+-0.399X2+.017X3$$

Y=1인지식서비스조직의 집중도

X1= 인구 1000명당 보헤미안 지수

X2=비서방 태생 외국인 지수

X3=공공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인구비율

어느 정도 개인적 환경요인이 1인지식서비스조직의 분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중복성의 제약, 통계적 유의미성의 제약에 의해 개인적 환경요인의 영향을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적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고려할 때 우리는 1인지식서비스조직과 개인적 환경요인 지수 간의 강력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모델 1에 따르면 가장 큰 영향은 보헤미안 지수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 다음으로 외국 태생 비 서구인으로 추정되어지는 개방성 지수가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나머지 세 개의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쉽게 떠오르는 생각은 이러한 결과는 도시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규모의 차이 문제를 고려할 때 우리는 상대적 가치로 변수를 구성하였다. 인구밀도와 대규모 인구가 결과를 희석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변수가 모델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를 하였고 인구밀도를 모델에 추가시키는 것이 변수 자체와 PPI를 무의미하게 하는 반면에 보헤미안 지수와 개방성 지수는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구변수를 추가할 때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만, 1인지식서비스조직과의 상관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거나 부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게다가 PPI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지만 보헤미안 지수와 개방성 지수는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 규모와 도시 밀도가 개인환경 지수가 1인지식서비스조직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1인지식서비스조직의 변수와 분포와 집중도가 밀접하게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결론지으면서 이 모델이 다른 요인이 동등한 중요성과 그 이상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 추가적으로 이 모델은 개인적 환경요인의 변화가 1인지식서비스조직의 분포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최종적인 답변을 제공하지는 못한다. 그 이유는 직업에 대한 시계열적 데이터가 불행하게도 서울시에는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가 2002년 이전에는 구할 수가 없었다. 직업 데이터도 1인지식서비스조직과 보헤미안 지수, 통합지수에 있어서 취약 요소로 나타났다. 재능은 서울시의 1인지식서비스조직에 훌륭한 대리변수로 적용되어질 수 있다.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고 따라서 두 변수는 유사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높은 상관관계는 1인지식서비스조직에 포함되어 있는 재능 있는 사람의 높은 비율의 결과이다. 재능에 있어서의 변화를 1인지식서비스조직의 집중

도에 있어서의 변화에 대한 대리변수로 사용하는 것은 1인지식서비스조직과 개인적 환경요인을 시계열적 시각에서 조사할 가능성을 제고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계열적 데이터의 결여는 두 개의 지수를 대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대리변수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

[표 4-16] 1인지식서비스조직 핵심 집단 회귀분석

모델요약

모델	R	R제곱	수정된 R제곱	표준추정오차
1	.942(a)	.888	.850	.0173449774

a 독립변수 : (Constant), 공공지수, 보헤미안지수, 기술지수, 외국인지수, 문화지수

분산분석

모델	제공의 합	자유도	평균합	F	유의확률	
1	회귀값	.043	6	.007	23.712	.000(a)
	잔차	.005	18	.000		
	합계	.048	24			

a 독립변수 : (Constant), 공공지수, 보헤미안지수, 기술지수, 외국인지수, 문화지수

b 종속변수 1인지식서비스조직 핵심집단

계수a

모델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값		
1	(constant)	.076	.035		2.142	.046
	기술지수	1.489	.190	.940	7.826	.000
	보헤미안지수	-.061	.241	-.030	-.255	.802
	외국인지수	-.559	.409	-.172	-1.366	.189
	공공지수	.820	.092	1.170	8.872	.000
	문화지수	-1.327	.675	-.269	-1.965	.065

a 종속변수 : 1인지식서비스조직 핵심집단

1인지식서비스조직 핵심 집단과 기술지수, 보헤미안지수, 외국인지수, 공



공지수, 문화지수, 환경지수간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유의확률이  $p < .000$ 이고 F값이 23.712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정된 R제곱 값이 .850으로서 1인지식서비스조직 핵심집단에 전반적으로 85.0%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비교적 높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모델 1B는 낮은 중첩성과 낮은 이변량 상관계수와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수정된 R 제곱이 0.528로 상당히 좋은 모델이고 재능의 지역적 집중도 변화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 변수는 관용에 대한 대리변수, 하나는 지역의 질에 관한 대리변수 이를 방정식 형태로 표시하면

$$Y = 51.067 + (-0.172X_1) + 1.170X_2$$

$X_1$  = 개방성 1지수의 변화

$X_2$  = PPI에 있어서의 변화

명백히 이 모델은 1인지식서비스조직의 집중도의 변화와 개인적 환경요인의 변화 간의 바람직한 관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 모델은 개인의 환경적 요인 변수와 1인지식서비스조직의 집중도 사이에 1993년부터 2002년까지의 10년 간에 걸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다시 한번 이 분석은 다른 요인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특히 이 모델에서는 단지 두 개의 개인적 환경요인에 관한 대리변수를 포함하고 있다.

### 제3절 1인지식서비스조직 성공과 조직적 환경요인 관련 연구결과

1인지식서비스조직의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을 조사해 본 후에 우리는 지역발전과 1인지식서비스조직의 존재 분포 간의 관계를 조사해 보고자 한다. 지역 발전은 그 거주자 별 지역 주민에 대한 고용률로 측정되어질 것이다 1인지식서비스조직은 지역의 경제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중요성은 첨단 산업의 고용이나 혁신 또는 기업가 정신에 대한 영향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모델2는 [표 4-17]의 관계가 도식화 되어 있다.

[표 4-17] 1인지식서비스조직과 고용률 회귀분석

**모델요약**

모델	R	R제곱	수정된 R제곱	표준추정오차
1	.658 <sup>2</sup>	.433	.352	.008782989

a 독립변수 : (Constant), 1인지식서비스조직 예술가집단, 핵심집단, 전문가집단

**분산분석**

모델		제곱의 합	자유도	평균합	F	유의확률
1	회귀값	.001	3	.000	5.347	.007 <sup>2</sup>
	잔차	.002	21	.000		
	합계	.003	24			

a 독립변수 : (Constant), 1인지식서비스조직 예술가집단, 핵심집단, 전문가집단

b 종속변수 : 소득수준

**계수a**

모델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값		
1	(constant)	.002	.012		.199	.844
	핵심집단	.041	.042	.168	.981	.338
	전문가집단	.139	.035	.748	3.997	.001
	예술집단	-.352	.204	-.320	-1.729	.098

a 종속변수 : 고용률

1인지식서비스조직과 고용률 간의 다중회귀분석결과, 유의확률이  $p < .007$  이고 F값이 5.347로서 1인지식서비스조직과 고용률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정된 회귀계수 값은 .352로서 전반적으로 1인지식서비스조직이 소득수준에 35.2%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낮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관계에 대한 분석은 1인지식서비스조직의 분포와 기술 지수 그리고 기업의 창업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시작된다. 이러한 관계를 두 개의 선형회귀 방정식으로 표시된다. 최초의 회귀 식은 기술 지수 (Y1)과 1인지식서비스조직(X1) 두 번째 회귀 방정식은 인구 1000명당 기업 창업률 (Y2)과 1인지식서비스조직(X1)

$$Y1=0.748X1-20.597, R\text{제곱}=0.3461, P<.000 \quad X1=\text{전문가집단}$$

두 개의 단순 회귀 방정식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Y1의 수정된 R제곱 값은 수용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Y2의 수정된 R제곱은 너무 낮아서 이 방정식은 거의 쓸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환경요인과 1인지식서비스조직 간의 이전 방정식과 비교해 볼 때, 개인적 환경요인 지수와 1인지식서비스조직 간의 관계는 1인지식서비스조직과 기업적 환경요인 간의 관계보다 좀 더 확실하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한 가지 이유는 개인적 환경요인과 1인지식서비스조직 간의 실제 강력한 관계가 있고 다른 이유로는 기업적 환경요인에서는 부정확한 대리변수를 사용한다는 이유를 들 수 있으며 아니면 두 가지 이유 모두를 들 수 있다. 수정된 기술지수는 서울시의 경제활동과 부합이 되지만 기업 창업 지수는 5장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대리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적 환경요인의 두 가지 지표와 지역경제 발전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중 회귀방정식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4-18] 1인지식서비스조직과 소득수준 회귀분석

모델요약

모델	R	R제곱	수정된 R제곱	표준추정오차
1	.681 <sup>2</sup>	.463	.285	.0498043400

a 독립변수 : (Constant), 환경지수, 공공지수, 보헤미안지수, 기술지수, 외국인지수, 문화지수

모델요약

모델	R	R제곱	수정된 R제곱	표준추정오차
1	.597 <sup>2</sup>	.357	.265	33845.67986

a 독립변수 : (Constant), 1인지식서비스조직 예술가집단, 핵심집단, 전문가집단

분산분석

모델		제곱의 합	자유도	평균합	F	유의확률
1	회귀값	0492651.7	3	3497551	3.879	.024 <sup>2</sup>
	잔차	6130948.3	21	5530045		
	합계	6623600.0	24			

a 독립변수 : (Constant), 1인지식서비스조직 예술가집단, 핵심집단, 전문가집단

b 종속변수 : 소득수준

계수a

모델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값			
1	(constant)	36754.536	46040.526			.798	.434
	핵심집단	71453.522	161116.166	.535		2.926	.008
	전문가집단	151391.93	133665.697	-.226		-1.133	.270
	예술집단	76687.429	785479.528	.170		.861	.399

a 종속변수 : 소득수준

1인지식서비스조직과 소득수준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모형은 0.265의 설명력을 나타내어 비교적 낮은 수준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창의 계층과 소득수준의 모형을 조사하려 했으나 1인지식서비스조직과 소득수준이 실질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1인지식서비스조직을 1인지식서비스조직

핵심집단, 전문가 집단, 예술가 집단의 3가지로 나누어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모델2는 기업적 환경요인 지수와 지역발전, 그 지역 내의 가구별 소득수준으로 측정 되어지는 지역 성장 간의 관계를 나타내 주고 있다. 독립변수 간의 상호관계와 중첩성이 이 모델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수정된 R제곱은 비교적 낮은 편이고 따라서 모델2의 가치는 현상의 26.5% 정도를 설명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런 관계를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Y=0.535X1+84.469 \quad X1= \text{핵심집단}$$

모델1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델2는 특정 기관의 변수들 간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다. 이 모델은 시간이 변함에 따른 관계를 설명해 주고있지 못하다. 시간에 따른 관계를 표현하는 모델을 만들고 따라서 기업관련 요인의 발전과 지역발전 간의 효과를 나타내주기 위해 우리는 일정 기간 내의 요인들의 변화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전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인 지식서비스조직에 관한 시계열적 데이터는 서울시에서는 구할 수 없다. 따라서 1993년부터 2002년까지 10년 간에 걸친 재능 지수로 대체되어질 것이다. 또한 기술 지수는 특정 기간의 변화를 계산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대신 1993년부터 2002년 까지 첨단산업에의 고용률의 변화는 기업 환경요인에의 대리변수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기업 창업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의 변화를 바탕으로 계산되었고, 변화에 따라 조사한 결과 지역 발전과 성과에 관한 두 개의 대리변수를 제시하였다. 첫째는 인구의 변화, 둘째는 고용율의 변화이다.

#### 제 4 절 연구가설의 검정 결과

연구결과 기술지수, 보헤미안 지수, 외국인 지수가 1인지식서비스조직분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P<.000$ 의 수준에서 0.940의 베타값으로 기술지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지식서비스조직을 세분화하여 1인지식서비스조직 핵심집단, 전문가 집단, 예술가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1인지식서비스조직 핵심집단 분포는 독립변수인 기술지수, 공공지수, 문화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이 나타났고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요인은 공공지수로서  $P<0.001$ 의 수준에서 1.170의 베타 값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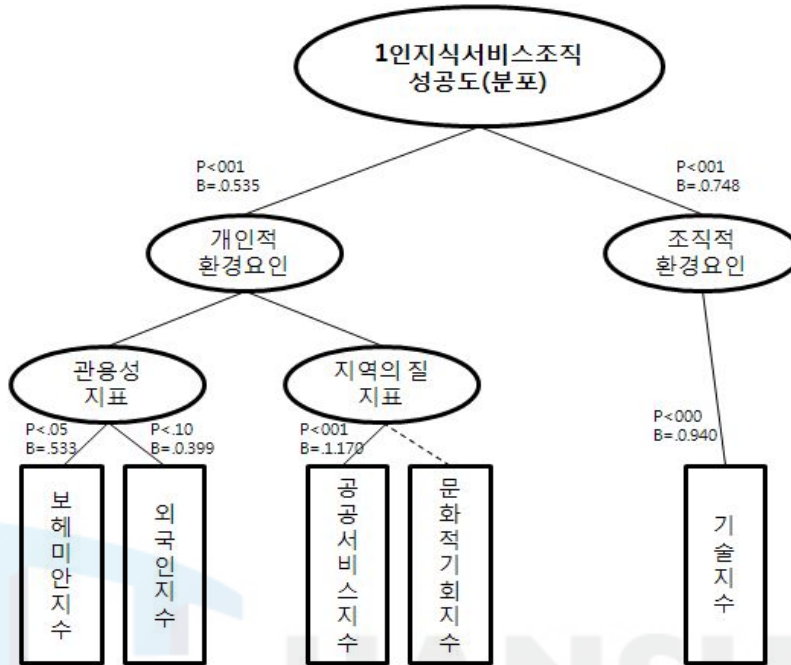
1인지식서비스조직 전문가 집단 분포는 보헤미안 지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P<0.05$ ,  $Beta=0.533$ ) 1인지식서비스조직 예술가 집단 분포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가 나타나지 않았다.

1인지식서비스조직 분포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 1인지식서비스조직의 하위 요소인 1인지식서비스조직 핵심집단, 전문가 집단, 예술가 집단 분포와 고용률과의 관계는 1인지식서비스조직 전문가 집단 분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냈다. ( $P<.001$ ,  $Beta=0.748$ )

1인지식서비스조직의 하위 요소인 1인지식서비스조직 핵심집단, 전문가 집단, 예술가 집단 분포와 소득수준과의 관계는 1인지식서비스조직 핵심집단 분포만이 소득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P<0.01$ ,  $beta=0.535$ )

결론적으로 1인지식서비스조직 핵심집단 분포는 소득 수준에, 1인지식서

비스조직 전문가집단 분포는 고용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냈다.



<그림 4-1> 연구가설의 검정 결과

1인 지식서비스조직 분포와 지역발전과의 관계에 관한 분석결과 1인 지식서비스조직 분포와 지역발전 간에는 전반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인 지식서비스조직 핵심집단 분포가 소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P<.001, Beta=0.535) 1인 지식서비스조직 전문가집단 분포가 고용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Beta=0.748)

① 개인적 환경요인의 검증결과

구분	연구가설	검증결과	비고	
가설1	관용성 가설1-1	• 보헤미안지수는 1인지식서비스조직성공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P<.05	채택
	관용성 가설1-2	• 외국인지수는 1인지식서비스조직성공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P<.10	채택
가설2	지역의 질 가설2-1	• 공공서비스지수는 1인지식서비스조직성공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P<.001	채택
	지역의 질 가설2-2	• 문화적기회지수는 1인지식서비스조직성공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기각

1인지식서비스조직 분포와 공공지수, 기술지수, 외국인지수, 보헤미안 지수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1인지식서비스조직 분포와 기술지수 ( $P<.05, \text{Beta}=0.564$ ), 보헤미안지수 ( $P<.05, \text{Beta}=0.533$ ), 외국인지수 ( $P<.01, \text{Beta}=0.399$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공지수의 경우에는 1인지식서비스조직의 하위 변수들 중 1인지식서비스조직 핵심집단 분포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 $P<.001, \text{Beta}=1.170$ ), 보헤미안 지수가 1인지식서비스조직의 하위 변수인 1인지식서비스조직 전문가 집단 분포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P<.05, \text{Beta}=0.533$ )

② 조직적 환경요인의 연구가설

구분	연구가설	검증결과	비고
가설 3	• 기술지수는 1인지식서비스조직성공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P<.000	채택



## 제 5 장 결 론

서울시의 1인지식서비스조직의 분포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기술하고 추가적으로 이 분포와 경제성장과의 관계가 조사되었다. 우리는 1인지식서비스조직 이론의 비판에 대한 몇 가지 주장을 하고자 한다. 우리는 Glaeser (2005), Markusen(2005), Peck(2005)에 의해 제기된 비판에 대해 논의했고 이러한 비판을 제시하고 Florida의 1인지식서비스조직을 Hansen(2005)의 지식기반 이론으로 세분화시켜서 논의하였다. 이러한 비판을 지적하면서 1인지식서비스조직에 대한 좀 더 다양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기술, 재능, 관용의 수정된 지표를 도입하여 1인지식서비스조직 이론을 미국적 시각에서 유럽적 시각으로 변형 하였다. 이러한 분석이 1인지식서비스조직에 대한 시계열적 데이터의 부족으로 제약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본 분석은 1인지식서비스조직의 증가가 경제 성장의 증가와의 관계에 대한 확고한 통계적 증거를 제시할 수 없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재능 변수(인적자본)가 대리변수로 도입되었다. 1인지식서비스조직과 재능을 대리변수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논의한 후 우리는 타협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은 1인지식서비스조직의 시계열 데이터의 결여로 제약이 있다. 본 조사는 1인지식서비스조직의 증가가 경제성장의 증가와의 관계에 대한 통계적 증거를 검증할 수 없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재능변수(인적자원)가 대리변수로 도입되었고 1인지식서비스조직과 재능간의 상관관계가 0.935로 나타났다. 1인지식서비스조직을 사용하거나, 재능을 인적자본에 대한 대리변수로 사용하는 것에 차이점과 유사점에 대한 논의에서 절충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1인지식서비스조직에 대한 시계열 데이터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1인지식서비스조직과 재능있는 인재와 개인적 환경요인, 기업적 환경요인, 지역발전과의 관계를 조사하고자 하는 의욕 때문이다. 1인지식서비스조직을 정적인 기술로 그리고 재능을 동적인 기술로 사용하는 절충적인 방법은 재능과 1인지식서비스조직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

로 인해 적용 가능하였다. 3장에서 서울시의 1인지식서비스조직에 대한 통계적 기술을 제공하였다. 분석결과, 서울시의 1인지식서비스조직 40%가 학사학위 또는 그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사람들로 범주화 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후에 재능을 1인지식서비스조직의 대리변수로 사용할 때 문제점으로 제시 되었다. 그러나 재능이 적합한 대리변수라는 것은 중요한 사실이다. 둘 사이에 상관관계는 매우 높고 1인지식서비스조직 범주가 비1인지식서비스조직 범주보다 7배 이상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는 1인지식서비스조직이 고학력이고 비창의적 모집단보다 윤리적이며 다양한 종류의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 단위의 기술, 재능, 관용에 다양한 측정수단이 도입되었다. 분석결과 몇몇 예외경우를 제외하고 주요 대학 도시들이 Richard Florida의 랭킹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Richard Florida와 그의 동료들이 사용한 측정 지수 이외에도 통합지수, 공공제공지수, 문화기회적지수, 신기업창업지수를 추가하였다. 이는 지역의 질과 기업가 정신이 이미 잘 알려진 기술, 재능, 관용지수 이외에도 지역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테스트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미국에서 개발된 지수에 새로운 측정지수를 추가함으로써 1인지식서비스조직이 유럽적인 환경에서 좀 더 적합한 형태가 될 수 있는 변수를 추가하였다. 특히 공공인프라 제공지수는 이 가운데에서도 유럽내에 국제적 경쟁력을 위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의 결론으로 본 논문에 가장 중요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인지식서비스조직, 기술, 재능 관용을 측정할 때 강남구, 중구, 서초구, 영등포구가 가장 경쟁력있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1인지식서비스조직에 대한 시계열데이터가 결여되어 있기는 하지만 1인지식서비스조직을 유치하는 지역과 지역성장을 경험하는 지역간의 확실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놀랍게도 영등포구가 서초구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한 가지 변수로 귀착되어 진다. 서대문구가 왕성한 대학활동과 공공부문의 규모의 경제로 인해 PPI 변수에서 높은 결과를 보여줬다. 지역이 규모가 클수록 PPI 변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다. 전반적으로 성동구 그리고 광진구, 종로구가 측정지표에서 중요한 순으로 나타났다. 중간규모의 서울시 지역들이 어떤 측정지수에서는 높은 지수를 나타냈지만 다른 지수에서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4개의 지역이 모든 측정지수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강남구는 기술지수와 문화기회지수에서 매우 높은 지수를 보여주고 PPI지수와 재능지수에서 서초구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측정지수의 성과를 추가하는 것이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측정지수를 추가하는 것이 강남구와 서초구의 경우에는 왜곡된 것으로 나타났고 전반적으로는 서울시 전역에 걸쳐 1인지식서비스조직의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권부터 하위권까지 중구와 영등포구가 25개 지자체 가운데 놀랍게도 19위로 나타났다. 도봉구와 강북구가 많은 측정지수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 관용성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보헤미안지수와 개방성지수 1, 2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통합지수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아 전반적으로 관용성 지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상호간에 통계적 결과를 언급하기 위해 몇 가지 모델이 제시되었다. 첫 번째 모델은 개인적 환경요인과 1인지식서비스조직간의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불행하게도 중첩성으로 인해 개인적 요인의 대리변수로 제시된 변수 가운데 몇 개의 변수를 제거해야만 했다. 그러나 모델에 포함될 수 있는 변수들이 개인적 환경요인의 중요한 요인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믿는다.

다음으로 1인지식서비스조직이 기업환경과 지역발전과에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지 조사해보았다. 모델 B와 모델 2B가 분석한 결과, 중첩성은 낮게 나타났지만 수정된  $r^2$  값이 낮게 나타났다. 특히 모델 2B에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재능과 조직환경요인과 지역발전간의 관계에 불확실성을 높여준다. 재능과 지역발전 사이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으면 좀 더 강력한 회귀 결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1인지식서비스조직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역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Richard Florida의 이론적 모델 가운데 조직적 환경요인이 서울시에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통계적 유의미성에 이유로는 본 분석에서 사용된 대리변수들이 Richard Florida가 제시한 것보다 부정확하고 좀 더 복잡하기 때문이다. 1인 지식서비스조직과 조직적 환경, 지역성장간의 관계를 재검토한 결과, 좀 더 새롭고 개선된 조직환경 변수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ichard Florida 이론가운데 조직적 요인에 관한 중요도는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지식기반 경제에서는 전통적 조직환경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지고 있다. 경쟁력이 점차 지식의 유통에 의존함에 따라 조직환경요인은 현대조직발전에는 중요성을 잃어가고 있다. 분석결과 3T모델(기술, 재능, 관용)에 공존이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3T모델은 서울시에는 해당되지 않았다. 지역성장은 오히려 관용과 재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시에서 3T는 2T 두개로 줄어들었다.

앞서 살펴본 결과들은 지역 발전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제이콥스와 루카스의 작업이나 글래서 등의 경험적 연구와 같이, 인재 또는 인적 자본은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인재는 주어진 것이 아니라 특정한 지역적 조건하에서 유인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재는 단순한 지역에서 보이는 특질이 아니다. 오히려 특정한 지역적 요인들이 인재 혹은 인적 자본을 산출하고 유인하는 환경을 창출한다.

이러한 요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성에 대한 개방성 또는 인재에 대한 낮은 진입 장벽이다. 다시 말하면, 지역 발전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접근은 기업들을 유치하고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려는 통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인적 자본을 유치하려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지역들은 이제 통상적인 비즈니스 환경 전략을 보완하여 인간 환경에 투자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드러났듯이, 인재를 유인하고 하이텍 산업을 창출하는 지역의 역량을 향상하는 일에 다양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지역들은 다양성을 지원하고 향상시키는 수단들을 강구해야 한다. 다양성은 이제 사회적 목표 이상의

것이다. 더욱이 그것은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이기도 하다.

본 논문이 지역발전에 시사하는 바는 아래와 같다.

첫째, 리차드 Richard Florida와 Childs(2004) 등의 경험적 연구와 같이 1인지식서비스조직은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보이며, 특히 1인지식서비스조직 가운데서 창의적 핵심집단과 전문가 집단이 지역발전에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인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지역적 조건하에서 유인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창조적 인재는 단순히 한 지역에서 보이는 특질이 아니다. 오히려 특정한 지역적 요인이 창조적 인재를 산출하고 유인하는 환경을 창출한다. 이러한 요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관용 또는 다양성 및 창조적 인재에 대한 낮은 진입 장벽이다. 다시 말해 지역발전을 위해 보다 효과적인 접근은 기업들을 유치하고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려는 통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인적 자원을 유치하려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셋째, 이 연구를 통해 드러났듯이 인재를 양성하고 지식산업을 창출하는 지역의 역량을 향상하는 일에 다양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지역들은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일반적으로 보헤미안 지수와 1인지식서비스조직 간에는 안정적이고 밀접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보헤미안 지수는 1인지식서비스조직의 집중에 대한 강력하고 분명한 설명변수이다.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 고정민 외 3인, 「지식서비스업의 중소기업 정책기반 확충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 삼성경제연구소, 2007.11.
- 김재진, 「근로빈곤층을 위한 선진국의 조세제도: 호주 및 뉴질랜드 사례」, 한국조세연구원, 2006.
- 김정우,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국제비교」, 『SERI 경제 포커스, 제187호』, 2008. 4.
- 김주훈, 차문중,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KDI정책포럼 제200호』, 2008.
- 신창목 외 4인, 「장기적 소비부진의 원인 분석」, 『CEO Information』, 삼성경제연구소, 2008. 8.
- 중소기업청, 「중소 지식서비스업 육성시책」, 중소기업청, 2007.9. 보도자료.
- 최영섭, 정진화, 「기업 주도의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기구 설립방안 연구」, 산업연구원, 2003.
- 한은선, 『2007년-2011년 한국 IT 서비스 시장 전망 업데이트 보고서』, IDC Korea, 2007.

## 2. 국외문헌

- Arrow, K. J. "Gifts and exchanges.",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No. 1 (4): 1972, p.343-62.
- Azariadis, C., and A. Drazen. "Threshold externalities in economic development",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No.105, (2): 1990, p.501-26.
- Barker, D., and C. J. Cameron. "Spirit of capitalism: Religious doctrine of values and economic attitude constructs." *Political Behavior*, Vol.22, 20 *Urban Affairs Review*, (1): 2000, p.1-27.
- Barro, R. J. "Human capital and growth.",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91, (2): 2001, p.12-17.
- Barro, R. J., and R. M. McCleary. "Religions and economic growth across count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68, (5): 2003, p.760-781.
- Barron, J. M., D. A. Black, and M. A. Loewenstein. "Employer size: The implications for search, training, capital investment, starting wages, and wage growth.", *Journal of Labor Economics*, No.5, (1): 1987, p.76-89.
- Basu, S., and D. N. Weil. "Appropriate technology and growth.",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113, (4): 1998, p.1025-1054.
- Becker, G. "Human capital. New York City: Columbia Univ.", Press for th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1964.
- Berry, C. R., and E. L. Glaeser. "The divergence of human capital levels across cities."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Working Paper No. RWP05-057, Harvard University, 2005.
- Binnie, J., and B. Skeggs. "Cosmopolitan knowledge and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sexualized space: Manchester's gay village.", *The Sociological Review*, Vol.52 (1): 2004, p.39-61.
- Black, S. E., and L. M. Lynch. "Human-capital investments and productivity.",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86 (2): 1996, p.263-267.
- Borjas, G. J. "The economics of immigration."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

No.32, 1994, p.1667-1717.

- Bourdieu, P. "The forms of capital. In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New York: Greenwood. 1986, p.241-258.
- .Childs. "Urban Growth & The Creative Class.", Honor Program Economics Dissertation, Boston College 2004.
- Clark, T. N., R. Lloyd, K. K. Wong, and P. Jain. "Amenities drive urban growth.", *Journal of Urban Affairs*, No.24, (5): 2002, p.493-515.
- Coleman, J.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94, (Suppl.): 1998, p.95-120.
- Cushing, Robert. "Creative capital, diversity, and urban growth." Unpublished manuscript. 2001.
- Foley, M., and B. Edwards. "Is it time to disinvest in social capital?", *Journal of Public Policy*, No.19, (2): 1999, p.141-73.
- Fukuyama, F.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Free Press, 1995.
- Glaeser, E. L., D. Laibson, and B. Sacerdote. "An economic approach to social capital.", *Economic Journal*, Vol.112, (483): 2002, p.437-58.
- Glaeser, E. L. "Review of Richard Florida's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Vol.35, (5): 2005, p.593-96.
- Goonewardena, K. "Creative class struggle.", Presentation at the INURA Conference on the Creative City, Amsterdam: 2004.
- Granovetter, M.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78, (6): 1973, p.1360-1380.
- Helliwell, J. F., and R. D. Putnam. "Economic growth and social capital in Italy.", *Eastern Economic Journal*, No.21, (3): 1995, p.295-306.
- H Westlund., F Calidoni-Lundberg. "The Creative Class and Social Capital: Civil Society, Regional Development and High-Tech Industry In Japan", CESIS Electronic Working Paper Series Paper No.112. 2007.
- Jacobs, J.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Harmondsworth,



- Middlesex: Penguin. 1965.
- Jorgenson, D. W., and K. J. Stiroh. "Information technology and growth.",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89, (2): 1999, p.109-115.
- Jovanovic, B., and R. Rob. "The growth and diffusion of knowledge.", *Review of Economic Studies*, Vol.56, (4): 1989, p.569-582.
- Hoyman, Faricy. "Test of Creative Class, Social Capital, and Human Capital Theories 21 Judd, D. R. 1999." *Constructing the tourist bubble*. In *The tourist city*, New Haven, CT: Yale Univ. Press. 1999, p.35-53.
- — —. "The infrastructure of play: Building the tourist city.", New York: M. E. 2003
- Sharpe. Keefer, P., and S. Knack. "Why don't poor countries catch up? A cross national test of an institutional explanation.", *Economic Inquiry*, No.35, (3): 1997, p.590-602.
- Loury, G. "A dynamic theory of racial income differences. In *Women, minorities, and employment discrimination*", edited by P. Wallace and A. LaMond, 1977, p.153-88.
- Lloyd, R., and T. N. Clark. "The city as an entertainment machine.", Chicago, IL: Univ. of Chicago Press, 2000.
- Lloyd, R. "Neo-bohemia: Art and neighborhood redevelopment in Chicago.", *Journal of Urban Affairs*, No.24, (5): 2002, p.517-532.
- Lucas, R. "On the mechanics of economic growth.",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No.22, 1988, p.3-42.
- Markusen, A. "Urban development and the politics of the creative class: Evidence from the study of artists.", *Environment and Planning*, Vol. A, No.38, (1): 2006, p.1921-1940.
- McClain, P. D. "The changing dynamics of urban politics: Black and Hispanic municipal employment Is there competition?", *Journal of Politics*, Vol.55, (2): 1993, p.399-414.
- Nahapiet, J., and S. Ghoshal. "Social capital, intellectual capital, and the

- organizational advantag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No.23, (2): 1998, p.242-66.
- Peck, J. "Struggling with the creative class.",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Vol.29, (4): 2005, p.740-70.
- Portes, A. "Social capital: Its origins and applications in contemporary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No.24, 1998, p.1-24.
- Putnam, R. D.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The American Prospect*, No.4, (13): 1993, p.35-42.
- — —.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The Journal of Democracy*, No.6, (1): 1995, p.65-78.
- — —.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 Schuster, 2000.
- — —. "E pluribus unum: Diversity and community in the twenty-first century.", *Scandinavian Political Studies*, No.30, (2): 2007, p.137-69.
- Putnam, R. D., R. Leonardi, and R. Nanetti.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NJ: Princeton Univ. Press. 1993.
- Putnam, R. D., and D. E. Campbell. "Faith matters: How religion is shaping American civil life.", Faculty working paper, Harvard University. 2007.
- Rona Boschma., M. Fritsch. "Creative Class and Regional Growth: Empirical Evidence from Eight European Countries.", Jena Economic research paper, 2007.
- Richard Brecknock. "Creative Capital: creative industries in the 'creative city'", Research Paper. 2003.
- Richard Florida,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And how it's transforming work, leisure, community, and everyday life.", New York: Basic Books. 2002.
- Richard Florida. "The Economic Geography of Talent.",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Vol.92, 2002, p.743-755.
- Richard Florida. "Bohemia and economic geography.",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2): 2002, p.55-71.

- Richard Florida. "Entrepreneurship, Creative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In: The emergence of entrepreneurship policy: governance.", Hart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 Richard Florida.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revised paperback edition. New York: Basic Books. 2004.
- Richard Florida., Irene Tinagli. "European In The Creative Age", Research Paper, 2004
- Richard Florida, *Cities and the creative class*. Oxford, Oxfordshire: Routledge. 2005.
- Richard Florida, "The flight of the creative class: The new global competition for talent.", New York: HarperCollins. 2005.
- Richard Florida., Irene Tinagli. "Italy in the Creative Age", Research Paper, 2006.
- Schultz, P. T. *Education investments and returns*, In Handbook of development economics, edited by H. Chenery and T. N. Srinivasan, New York: Elsevier, 1988, p.543-630.
- Solt, F. "Civics or structure? Revisiting the origins of democratic quality in the Italian region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No.34, 2004, p.123-135.
- Sullivan, J. L., J. Piereson, and G. E. Marcus. "Political tolerance and American democracy.", Chicago, IL: Univ. of Chicago Press. 1993.
- Whyte, W. H. "The organizational man.", New York: Anchor. 1956.
- Wilson, W. J. "When work disappears: The world of the new urban poor.", New York: Knopf. 1996.
- Woolcock, M. "Social capital and economic development: Toward a theoretical synthesis and policy framework.", *Theory and Society*, No.27, (2): 1998, p.151-208.
- — —. "The place of social capital in understanding social and economic outcomes.", *Canadian Journal of Policy Research*, Vol.2 (1): 2001, p.1-17.

— — —. "Social capital in theory and practice: Where do we stand? In Social capital and economic development: Well-being in developing countries", edited by J. Isham, T. Kelly, and S. Ramaswamy, Cheltenham, UK: Edward Elgar. 2002, p.18-39.

Zucker, L. G., M. R. Darby, and M. B. Brewer. "Intellectual human capital and the birth of U.S. biotechnology enterprise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88, (1):1998, p.290-3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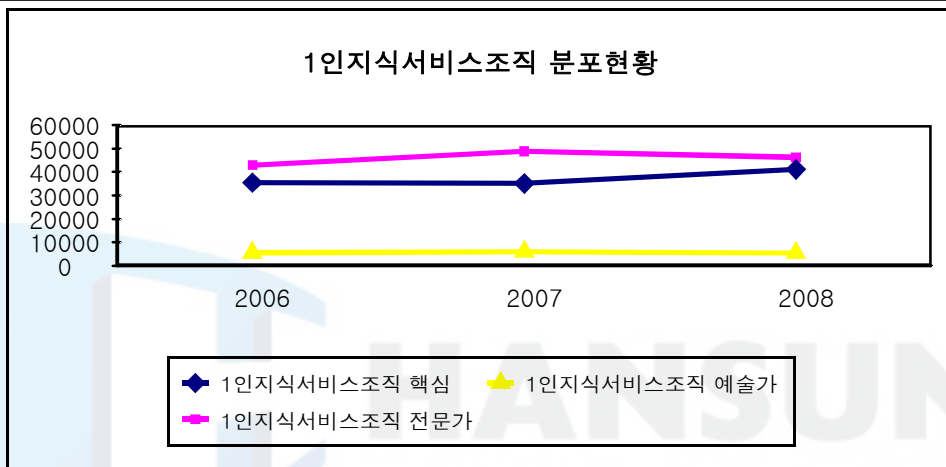
【 부 록 1 】

서울시 자치구별  
1인지식서비스조직분포 현황



# 1. 종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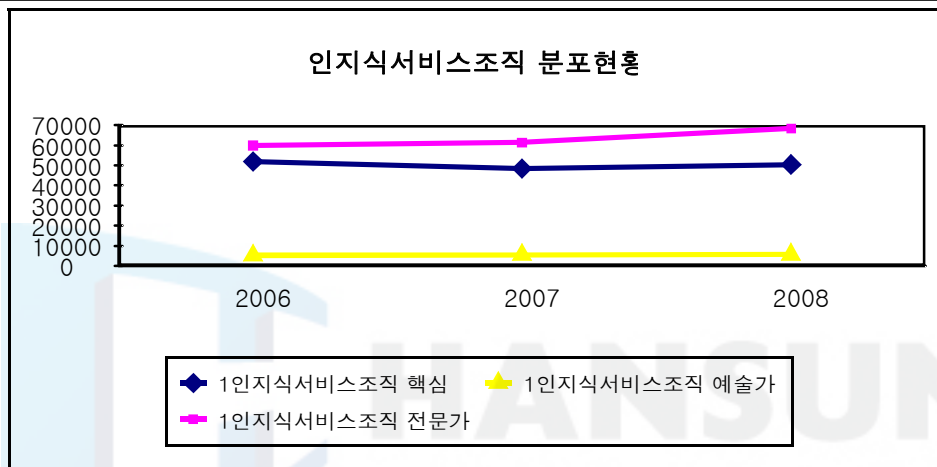
	(단위 : 명)		
	2006년	빈 도 2007년	2008년
1인지식서비스조직 핵심집단	35,438	35,089	41,142
1인지식서비스조직 전문가 집단	42,940	48,815	46,266
1인지식서비스조직 예술가 집단	5,643	6,063	5,489



		빈 도		
		2006년	2007년	2008년
핵심 집단	사업서비스업	25,727	25,773	29,910
	교육서비스업	9,711	9,316	11,232
전문가 집단	금융 및 보험업	16,540	20,208	19,10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16,687	18,814	17,20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9,713	9,995	9,958
예술가 집단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5,630	6,063	5,489

## 2. 중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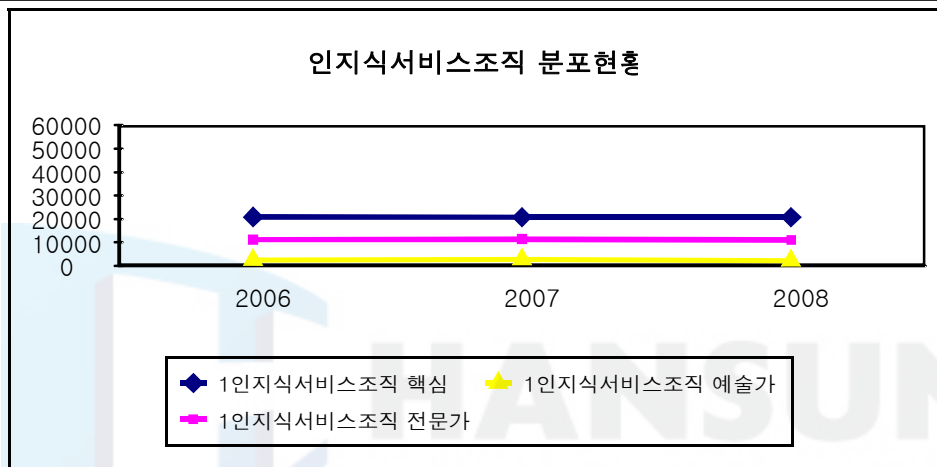
	(단위 : 명)		
	빈 도		
	2006년	2007년	2008년
1인지식서비스조직 핵심집단	51,990	48,497	50,434
1인지식서비스조직 전문가 집단	59,933	61,410	68,373
1인지식서비스조직 예술가 집단	5,233	5,423	5,674



		빈 도		
		2006년	2007년	2008년
핵심 집단	사업서비스업	47,281	43,393	44,833
	교육서비스업	4,709	5,104	5,801
전문가 집단	금융 및 보험업	45,120	48,241	53,56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8,936	9,425	8,979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5,877	5,744	5,828
예술가 집단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5,233	5,423	5,674

### 3. 용산구

	(단위 : 명)		
	빈 도		
	2006년	2007년	2008년
1인지식서비스조직 핵심집단	20,903	20,819	20,792
1인지식서비스조직 전문가 집단	11,193	11,378	11,071
1인지식서비스조직 예술가 집단	2,552	2,724	2,2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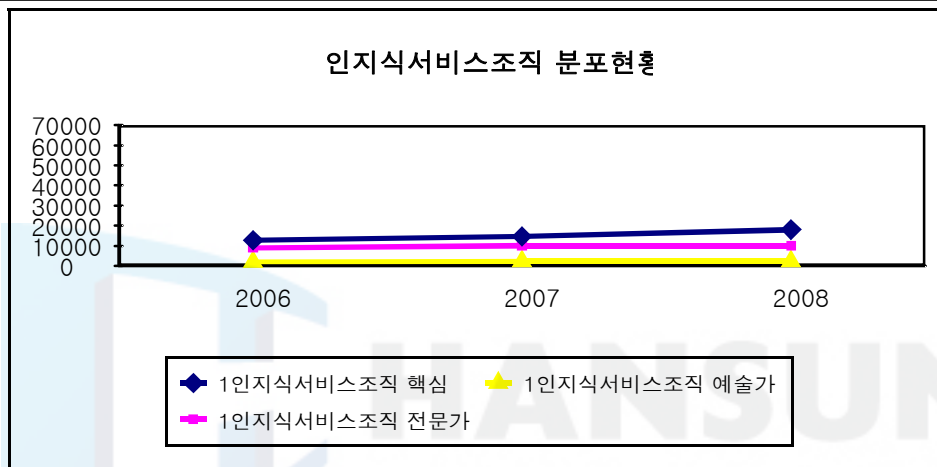


		빈 도		
		2006년	2007년	2008년
핵심 집단	사업서비스업	14,818	13,390	14,214
	교육서비스업	6,085	7,429	6,578
전문가 집단	금융 및 보험업	3,548	3,920	3,79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3,713	3,329	3,132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3,932	4,129	4,145
예술가 집단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2,552	2,724	2,287



#### 4. 성동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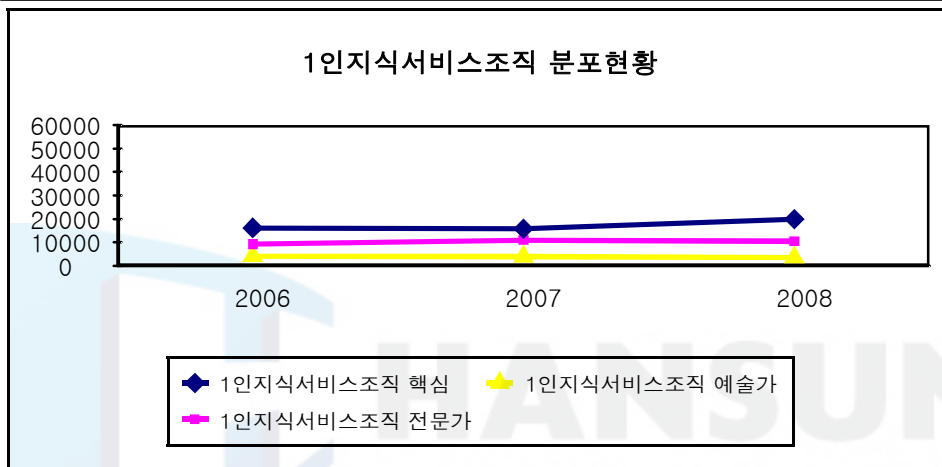
	(단위 : 명)		
	빈 도		
	2006년	2007년	2008년
1인지식서비스조직 핵심집단	12,710	14,602	17,991
1인지식서비스조직 전문가 집단	9,010	10,071	10,000
1인지식서비스조직 예술가 집단	1,907	2,222	2,222



		빈 도		
		2006년	2007년	2008년
핵심 집단	사업서비스업	5,237	7,401	10,280
	교육서비스업	7,473	7,201	7,731
전문가 집단	금융 및 보험업	2,342	2,713	2,45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2,317	2,808	2,708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4,351	4,550	4,835
예술가 집단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1,907	2,222	2,222

## 5. 광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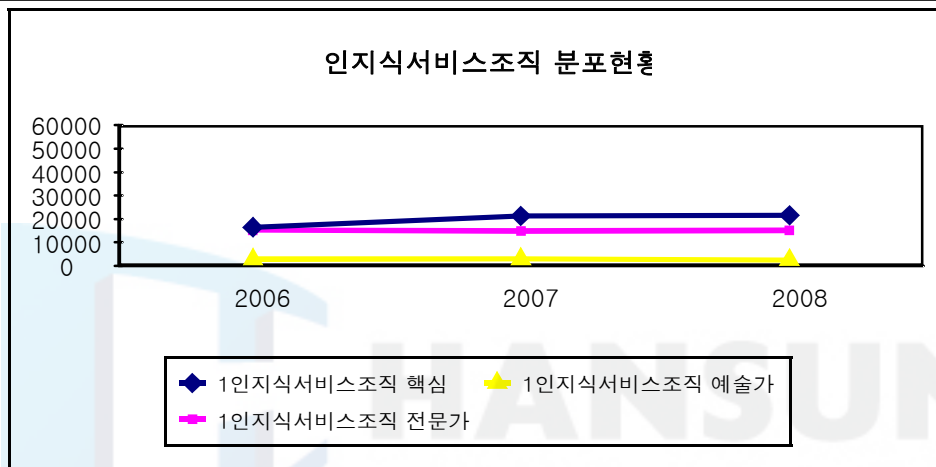
	(단위 : 명)		
	빈 도		
	2006년	2007년	2008년
1인지식서비스조직 핵심집단	16,141	15,818	19,884
1인지식서비스조직 전문가 집단	9,201	10,986	10,536
1인지식서비스조직 예술가 집단	4,080	3,963	3,625



		빈 도		
		2006년	2007년	2008년
핵심 집단	사업서비스업	6,773	7,637	9,140
	교육서비스업	9,368	8,181	10,744
전문가 집단	금융 및 보험업	2,078	2,711	2,56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3,222	3,464	2,937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3,901	6,811	5,037
예술가 집단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4,080	3,963	3,625

## 6. 동대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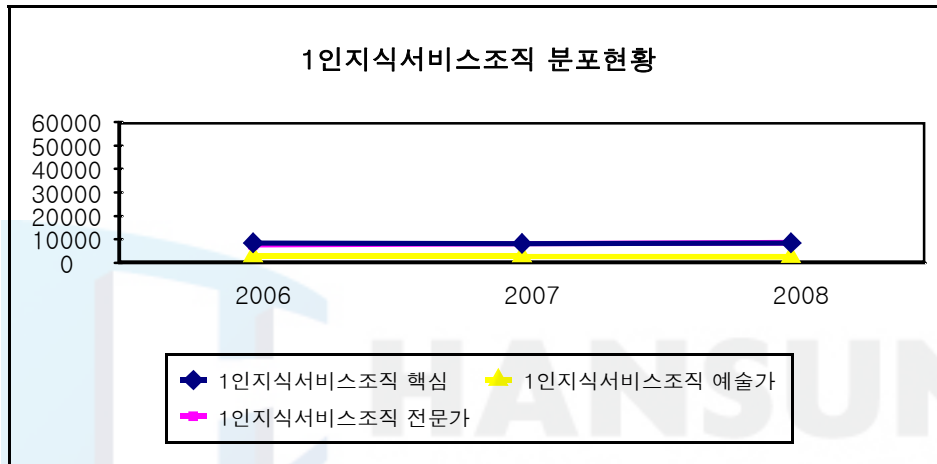
	(단위 : 명)		
	2006년	빈 도 2007년	2008년
1인지식서비스조직 핵심집단	16,466	21,362	21,606
1인지식서비스조직 전문가 집단	15,256	14,934	15,200
1인지식서비스조직 예술가 집단	2,883	2,924	2,524



		빈 도		
		2006년	2007년	2008년
핵심 집단	사업서비스업	8,215	9,997	11,118
	교육서비스업	8,251	11,365	10,490
전문가 집단	금융 및 보험업	3,925	3,801	3,88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3,303	3,479	3,347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8,028	7,654	7,988
예술가 집단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2,883	2,924	2,524

## 7. 중량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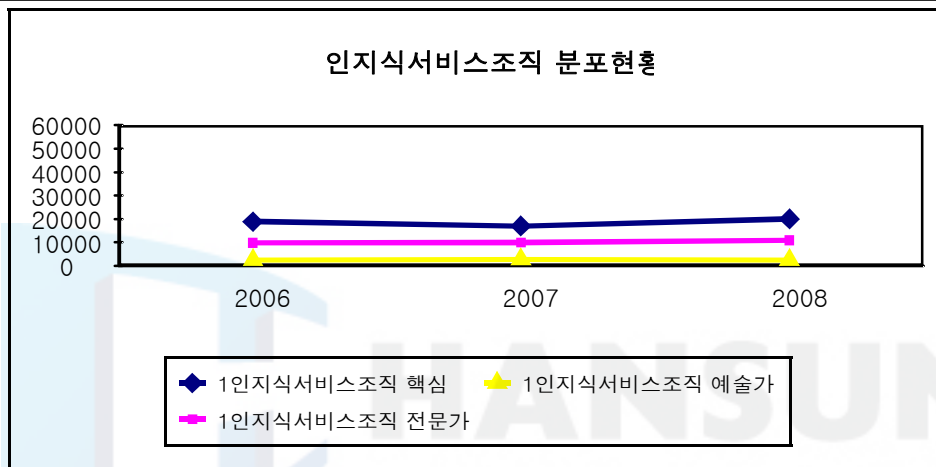
	(단위 : 명)		
	빈 도		
	2006년	2007년	2008년
1인지식서비스조직 핵심집단	8,541	8,273	8,506
1인지식서비스조직 전문가 집단	7,808	8,135	8,560
1인지식서비스조직 예술가 집단	2,726	2,782	2,580



		빈 도		
		2006년	2007년	2008년
핵심 집단	사업서비스업	1,555	1,761	1,745
	교육서비스업	6,986	6,512	6,761
전문가 집단	금융 및 보험업	1,832	1,829	1,649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2,578	2,753	2,973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3,398	3,553	3,938
예술가 집단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2,726	2,782	2,580

## 8. 성북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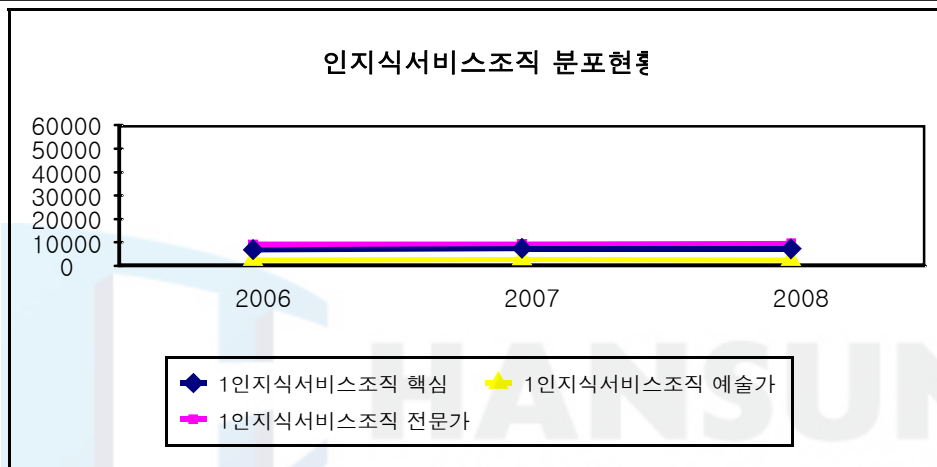
	(단위 : 명)		
	빈 도		
	2006년	2007년	2008년
1인지식서비스조직 핵심집단	18,931	16,994	20,070
1인지식서비스조직 전문가 집단	9,828	9,948	10,964
1인지식서비스조직 예술가 집단	2,428	2,768	2,459



		빈 도		
		2006년	2007년	2008년
핵심 집단	사업서비스업	5,054	4,557	4,142
	교육서비스업	13,877	12,437	15,928
전문가 집단	금융 및 보험업	1,969	1,746	2,16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2,848	2,840	2,802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5,011	5,362	5,994
예술가 집단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2,428	2,768	2,459

## 9. 강북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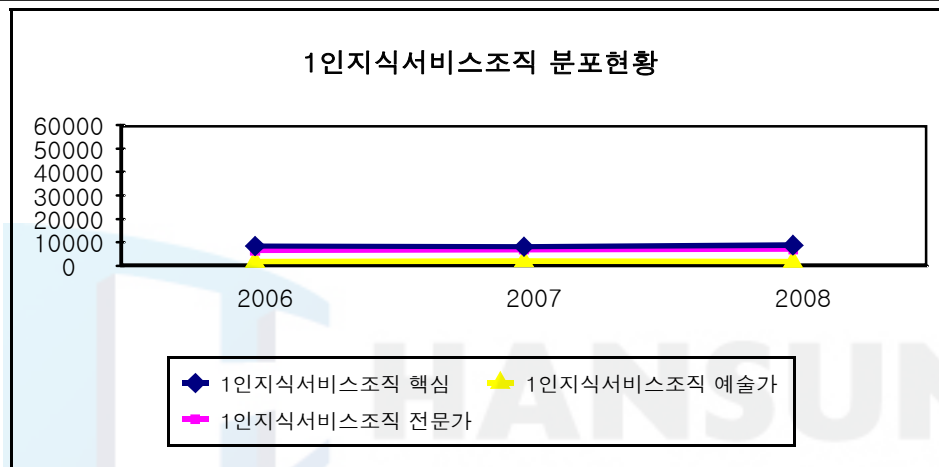
	(단위 : 명)		
	빈 도		
	2006년	2007년	2008년
1인지식서비스조직 핵심집단	6,920	7,443	7,300
1인지식서비스조직 전문가 집단	9,128	9,337	9,532
1인지식서비스조직 예술가 집단	2,517	2,692	2,476



		빈 도		
		2006년	2007년	2008년
핵심 집단	사업서비스업	1,924	2,550	2,448
	교육서비스업	4,996	4,893	4,852
전문가 집단	금융 및 보험업	3,693	3,670	3,60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2,159	2,207	2,291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3,276	3,480	3,638
예술가 집단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2,517	2,692	2,476

## 10. 도봉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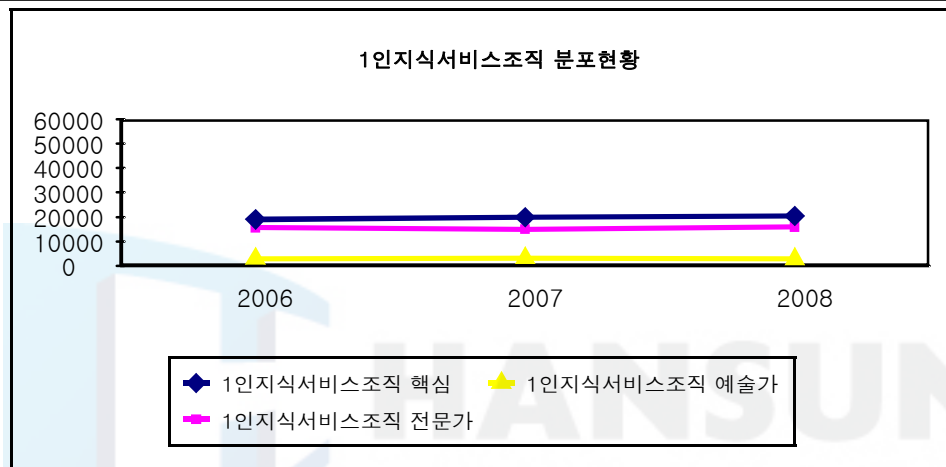
	(단위 : 명)		
	빈 도		
	2006년	2007년	2008년
1인지식서비스조직 핵심집단	8,393	8,158	8,839
1인지식서비스조직 전문가 집단	6,498	6,862	7,006
1인지식서비스조직 예술가 집단	1,799	2,013	1,754



		빈 도		
		2006년	2007년	2008년
핵심 집단	사업서비스업	1,458	1,261	1,397
	교육서비스업	6,935	6,897	7,442
전문가 집단	금융 및 보험업	1,046	1,084	1,11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2,494	2,571	2,343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958	3,207	3,548
예술가 집단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1,799	2,013	1,754

## 11. 노원구

	(단위 : 명)		
	2006년	빈 도 2007년	2008년
1인지식서비스조직 핵심집단	19,023	19,941	20,405
1인지식서비스조직 전문가 집단	15,695	14,928	15,966
1인지식서비스조직 예술가 집단	2,967	3,122	2,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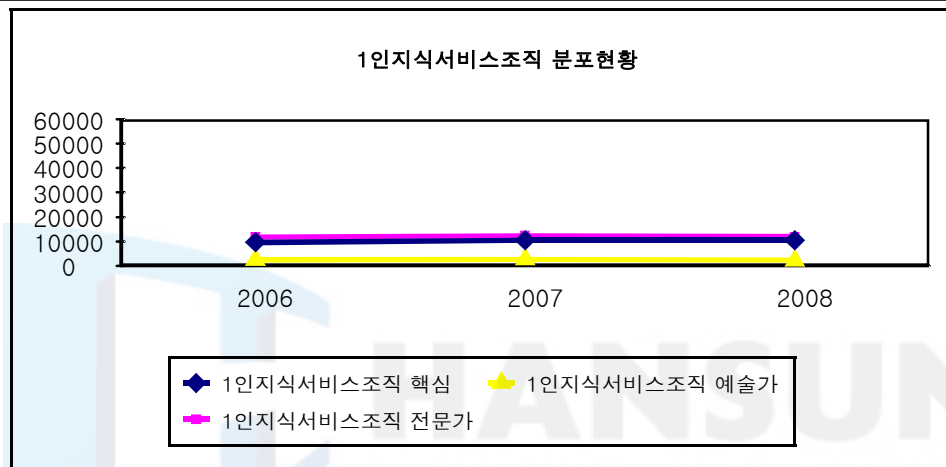


		빈 도		
		2006년	2007년	2008년
핵심 집단	사업서비스업	2,172	2,044	1,884
	교육서비스업	16,851	17,897	18,521
전문가 집단	금융 및 보험업	4,139	3,735	3,66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3,342	2,803	3,256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8,214	8,590	9,049
예술가 집단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2,967	3,122	2,800



## 12. 은평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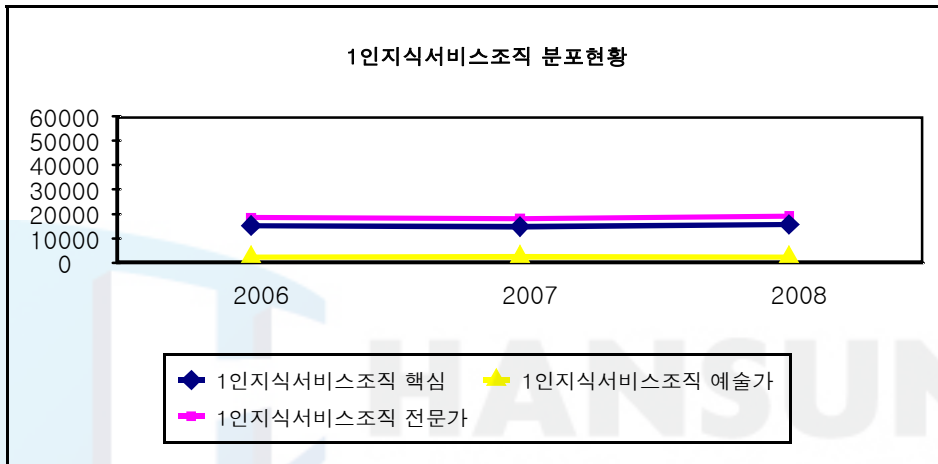
	(단위 : 명)		
	빈 도		
	2006년	2007년	2008년
1인지식서비스조직 핵심집단	9,587	10,451	10,428
1인지식서비스조직 전문가 집단	11,788	12,305	11,890
1인지식서비스조직 예술가 집단	2,478	2,647	2,281



		빈 도		
		2006년	2007년	2008년
핵심 집단	사업서비스업	2,166	2,679	2,647
	교육서비스업	7,421	7,772	7,781
전문가 집단	금융 및 보험업	2,767	2,833	2,49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4,250	4,320	4,091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4,771	5,152	5,302
예술가 집단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2,478	2,674	2,281

### 13. 서대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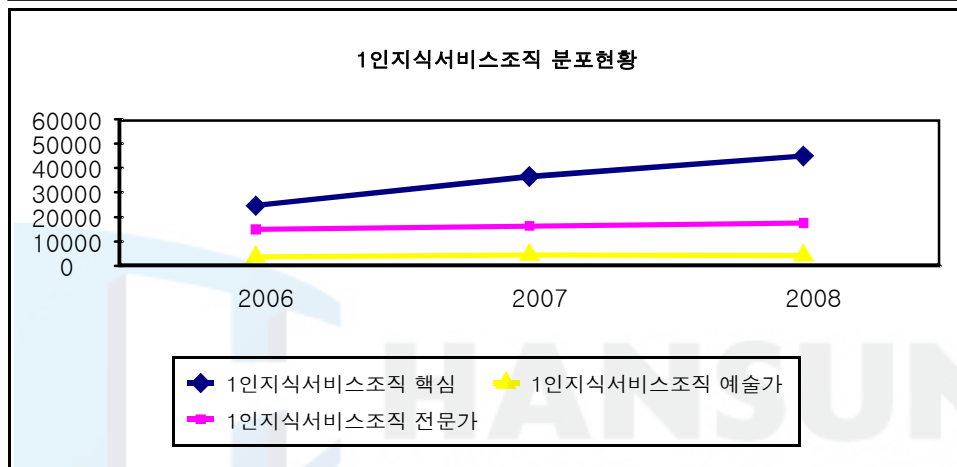
	(단위 : 명)		
	빈 도		
	2006년	2007년	2008년
1인지식서비스조직 핵심집단	15,230	14,814	15,660
1인지식서비스조직 전문가 집단	18,510	18,104	19,141
1인지식서비스조직 예술가 집단	2,359	2,522	2,383



		빈 도		
		2006년	2007년	2008년
핵심 집단	사업서비스업	5,579	4,856	5,227
	교육서비스업	9,651	9,958	10,433
전문가 집단	금융 및 보험업	5,423	5,450	5,29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4,842	4,020	4,702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8,245	8,634	9,144
예술가 집단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2,359	2,522	2,383

## 14. 마포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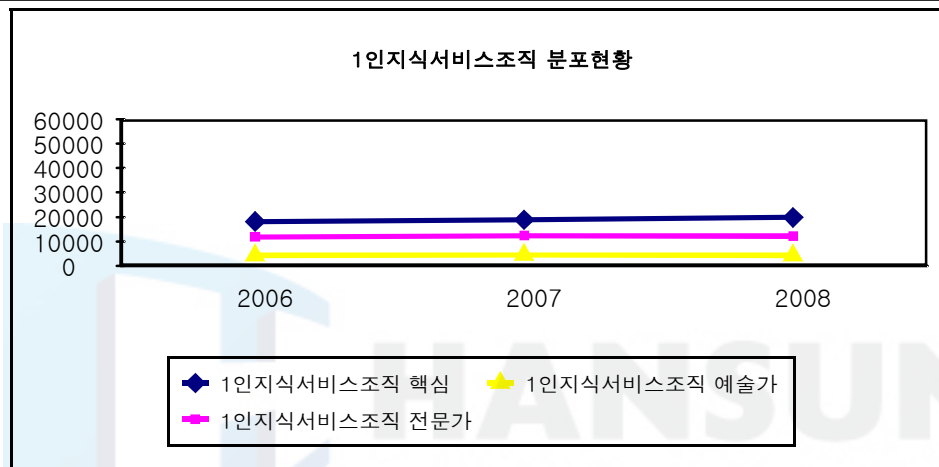
	(단위 : 명)		
	빈 도		
	2006년	2007년	2008년
1인지식서비스조직 핵심집단	24,683	36,532	44,960
1인지식서비스조직 전문가 집단	14,921	16,278	17,506
1인지식서비스조직 예술가 집단	3,719	4,504	4,215



		빈 도		
		2006년	2007년	2008년
핵심 집단	사업서비스업	15,546	25,095	31,628
	교육서비스업	9,137	11,437	13,332
전문가 집단	금융 및 보험업	7,655	8,405	9,64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4,200	4,198	3,890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3,066	3,675	3,970
예술가 집단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3,719	4,504	4,215

## 15. 양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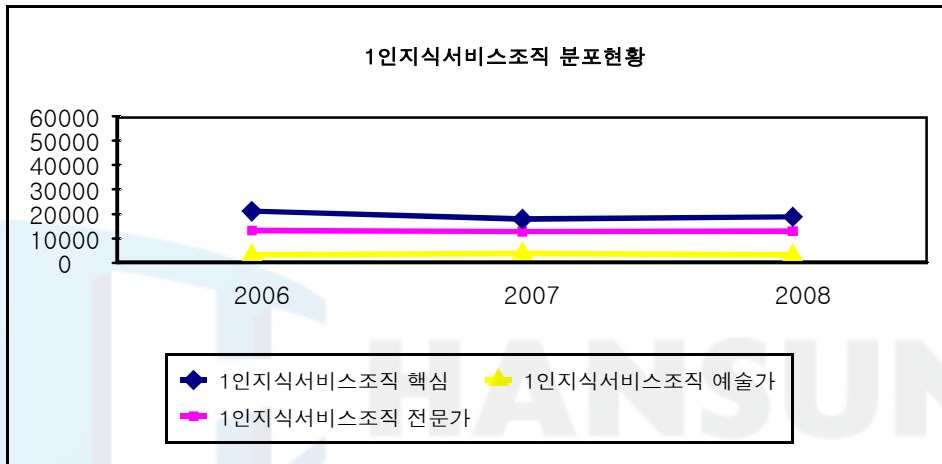
	(단위 : 명)		
	2006년	빈 도 2007년	2008년
1인지식서비스조직 핵심집단	18,096	18,903	19,846
1인지식서비스조직 전문가 집단	11,876	12,323	12,192
1인지식서비스조직 예술가 집단	4,312	4,451	4,302



		빈 도		
		2006년	2007년	2008년
핵심 집단	사업서비스업	15,546	25,095	8,710
	교육서비스업	9,137	11,437	11,138
전문가 집단	금융 및 보험업	7,655	8,405	2,80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4,200	4,198	3,480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3,066	3,675	6,106
예술가 집단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3,719	4,504	4,302

## 16. 강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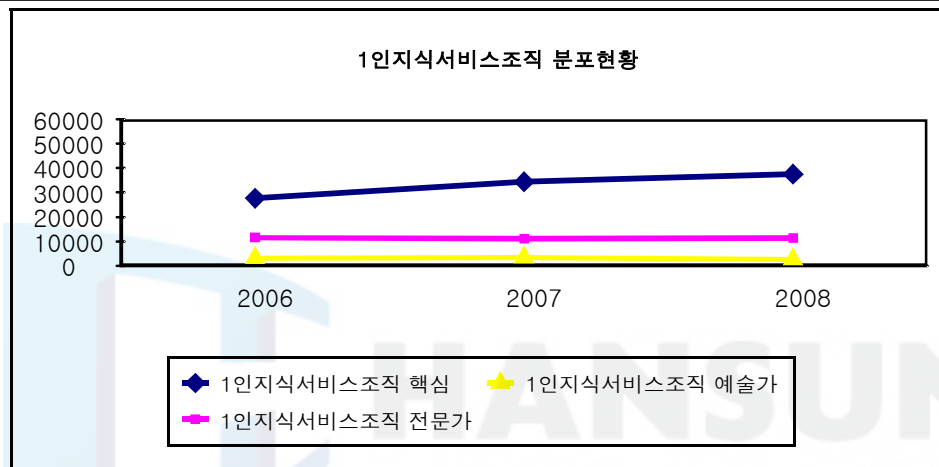
	(단위 : 명)		
	빈 도		
	2006년	2007년	2008년
1인지식서비스조직 핵심집단	21,141	17,904	18,861
1인지식서비스조직 전문가 집단	13,209	12,856	12,980
1인지식서비스조직 예술가 집단	3,249	3,822	3,281



		빈 도		
		2006년	2007년	2008년
핵심 집단	사업서비스업	11,483	8,013	8,581
	교육서비스업	9,658	9,891	10,280
전문가 집단	금융 및 보험업	4,504	3,611	4,18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3,650	3,625	2,969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5,055	5,620	5,823
예술가 집단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3,249	3,822	3,281

## 17. 구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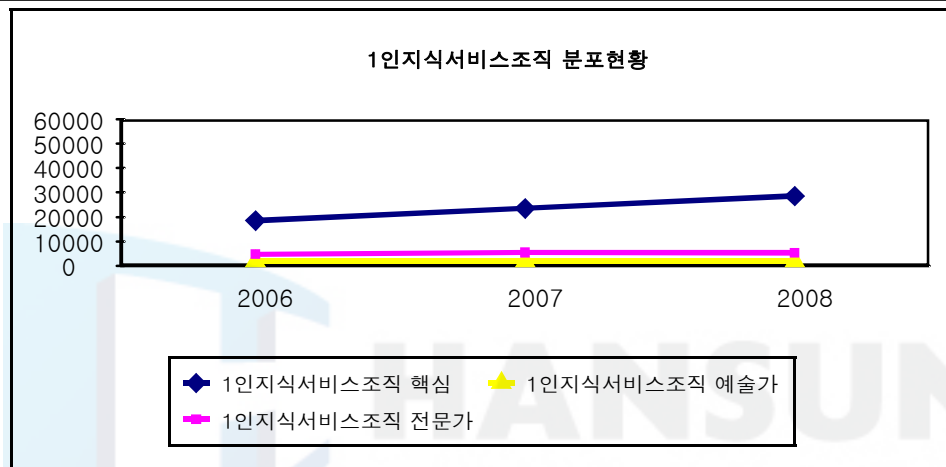
	(단위 : 명)		
	빈 도		
	2006년	2007년	2008년
1인지식서비스조직 핵심집단	27,686	34,377	37,512
1인지식서비스조직 전문가 집단	11,576	11,099	11,359
1인지식서비스조직 예술가 집단	3,227	3,410	2,674



		빈 도		
		2006년	2007년	2008년
핵심 집단	사업서비스업	20,398	26,451	29,633
	교육서비스업	7,288	7,926	7,879
전문가 집단	금융 및 보험업	3,423	3,394	3,44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4,010	3,438	3,381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4,143	4,267	4,536
예술가 집단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3,227	3,410	2,674

## 18. 금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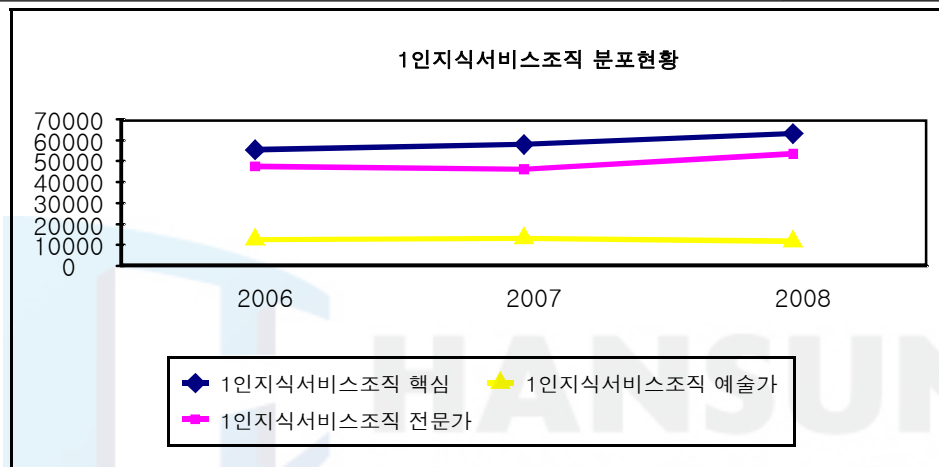
	(단위 : 명)		
	빈 도		
	2006년	2007년	2008년
1인지식서비스조직 핵심집단	18,513	23,538	28,604
1인지식서비스조직 전문가 집단	4,782	5,470	5,354
1인지식서비스조직 예술가 집단	1,884	1,876	1,895



		빈 도		
		2006년	2007년	2008년
핵심 집단	사업서비스업	14,395	19,144	23,884
	교육서비스업	4,118	4,394	4,720
전문가 집단	금융 및 보험업	1,206	1,485	1,50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1,524	1,803	1,632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052	2,182	2,218
예술가 집단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1,884	1,876	1,895

## 19. 영등포구

		(단위 : 명)		
		빈 도		
		2006년	2007년	2008년
1인지식서비스조직	핵심집단	55,415	57,950	63,173
1인지식서비스조직	전문가 집단	47,524	46,201	53,538
1인지식서비스조직	예술가 집단	125,75	13,201	11,7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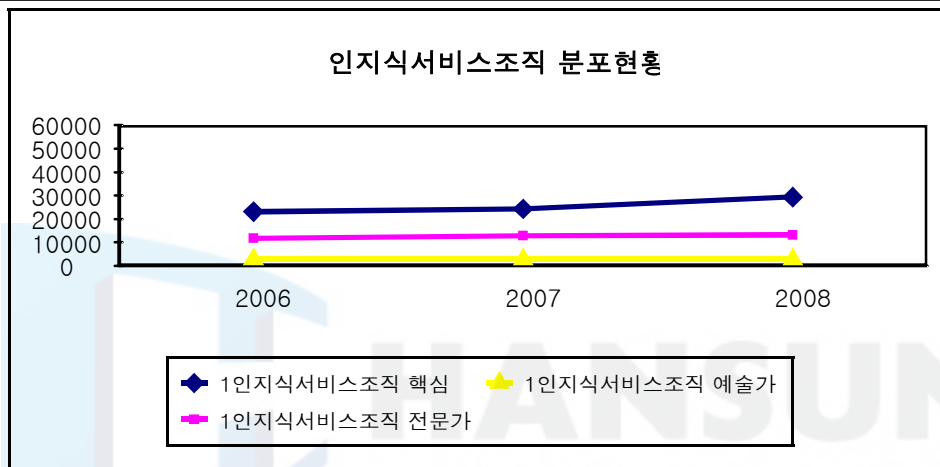


		빈 도		
		2006년	2007년	2008년
핵심	사업서비스업	48,681	50,347	55,704
집단	교육서비스업	6,734	7,603	7,469
전문가	금융 및 보험업	31,040	30,947	38,439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8,123	6,835	7,958
집단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8,361	8,419	9,141
예술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12,575	13,201	11,790
집단				



## 20. 동작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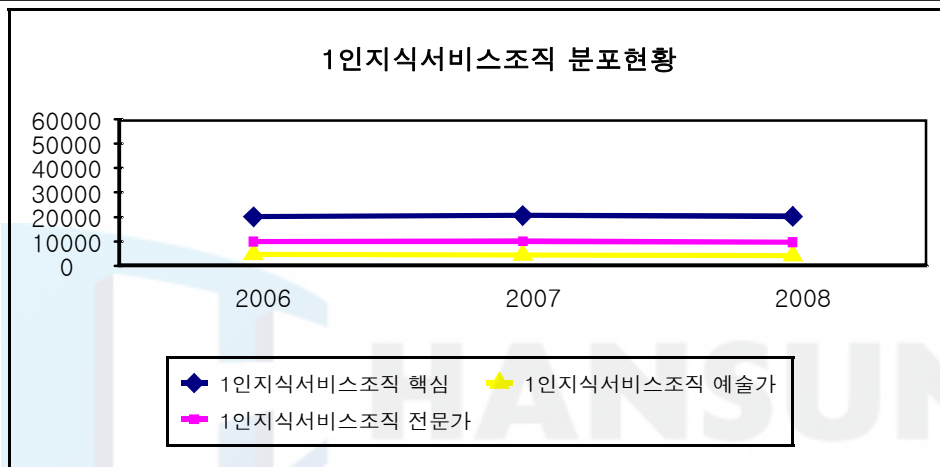
	(단위 : 명)		
	빈 도		
	2006년	2007년	2008년
1인지식서비스조직 핵심집단	23,103	24,308	29,393
1인지식서비스조직 전문가 집단	11,824	12,893	13,269
1인지식서비스조직 예술가 집단	2,757	2,769	2,727



		빈 도		
		2006년	2007년	2008년
핵심 집단	사업서비스업	11,972	12,931	17,389
	교육서비스업	111,31	11,377	12,004
전문가 집단	금융 및 보험업	3,965	3,882	4,17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2,594	3,297	2,92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5,265	5,714	6,168
예술가 집단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2,757	2,769	2,727

## 21. 관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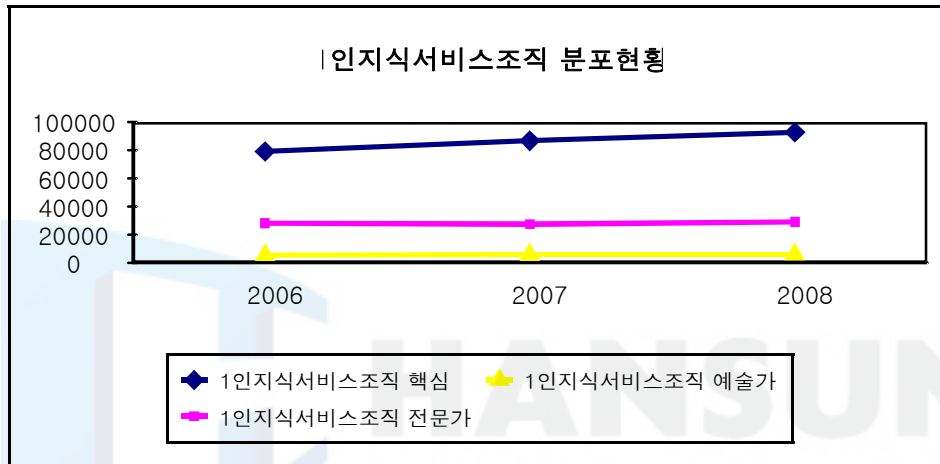
	(단위 : 명)		
	빈 도		
	2006년	2007년	2008년
1인지식서비스조직 핵심집단	20,116	20,613	20,272
1인지식서비스조직 전문가 집단	9,923	10,064	9,670
1인지식서비스조직 예술가 집단	4,708	4,498	4,245



		빈 도		
		2006년	2007년	2008년
핵심 집단	사업서비스업	6,771	5,818	6,348
	교육서비스업	13,345	14,797	13,924
전문가 집단	금융 및 보험업	2,820	2,634	2,66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3,512	3,414	2,988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3,591	4,018	4,019
예술가 집단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4,708	4,498	4,245

## 22. 서초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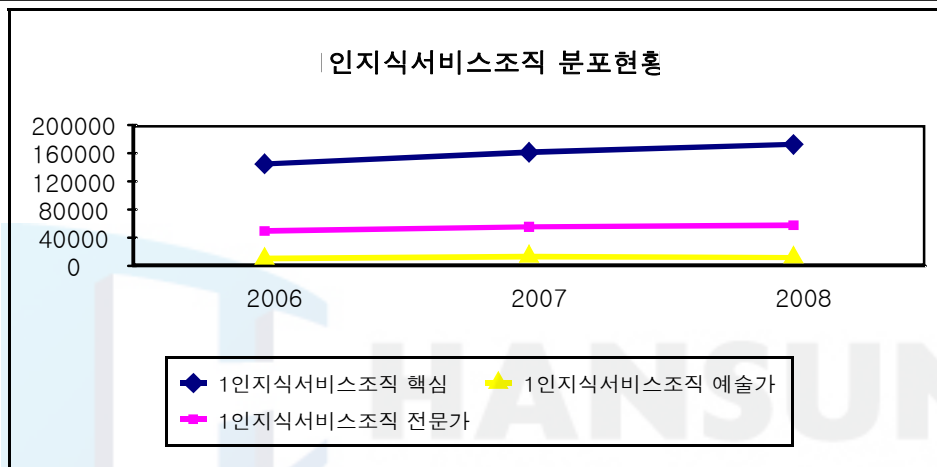
	(단위 : 명)		
	2006년	빈 도 2007년	2008년
1인지식서비스조직 핵심집단	79,164	86,881	92,925
1인지식서비스조직 전문가 집단	28,234	27,499	29,149
1인지식서비스조직 예술가 집단	5,413	5,793	5,899



		빈 도		
		2006년	2007년	2008년
핵심 집단	사업서비스업	49,343	75,787	81,923
	교육서비스업	9,821	11,094	11,002
전문가 집단	금융 및 보험업	11,608	10,998	11,53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9,056	8,181	8,782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570	8,320	8,834
예술가 집단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5,413	5,793	5,899

### 23. 강남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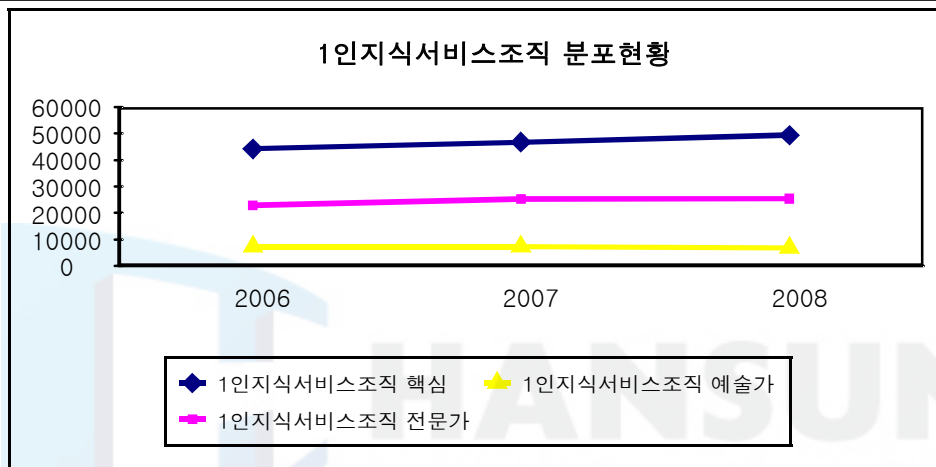
	(단위 : 명)		
	빈 도		
	2006년	2007년	2008년
1인지식서비스조직 핵심집단	145,189	161,658	172,611
1인지식서비스조직 전문가 집단	49,568	55,531	57,652
1인지식서비스조직 예술가 집단	10,543	13,299	11,978



		빈 도		
		2006년	2007년	2008년
핵심 집단	사업서비스업	129,112	143,088	155,142
	교육서비스업	16,077	18,570	17,469
전문가 집단	금융 및 보험업	27,553	3,474	32,34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4,471	5,036	4,928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7,544	20,021	20,377
예술가 집단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10,543	13,299	11,978

## 24. 송파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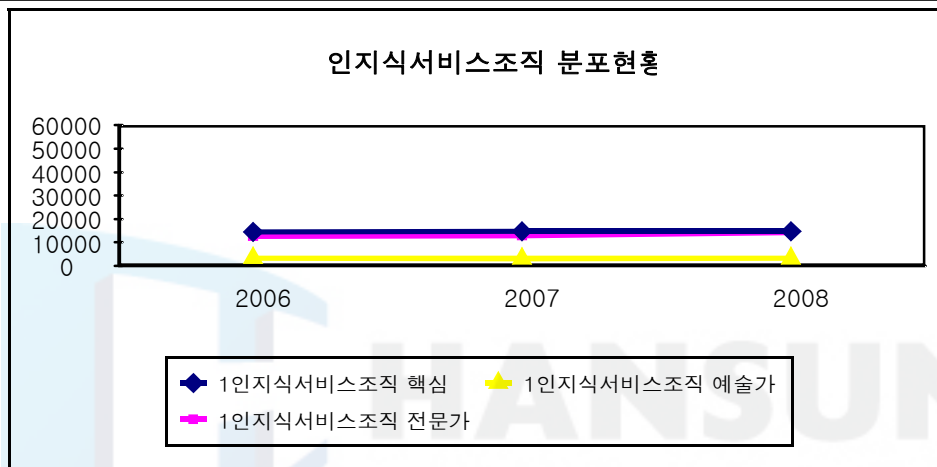
	(단위 : 명)		
	빈 도		
	2006년	2007년	2008년
1인지식서비스조직 핵심집단	44,287	46,784	49,435
1인지식서비스조직 전문가 집단	22,877	25,336	25,417
1인지식서비스조직 예술가 집단	7,290	7,271	6,757



		빈 도		
		2006년	2007년	2008년
핵심 집단	사업서비스업	31,618	33,757	36,340
	교육서비스업	12,669	13,027	13,095
전문가 집단	금융 및 보험업	7,468	9,292	9,23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4,443	4,306	4,358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0,966	11,738	11,827
예술가 집단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7,290	7,271	6,757

## 25. 강동구

	(단위 : 명)		
	빈 도		
	2006년	2007년	2008년
1인지식서비스조직 핵심집단	14,396	14,682	14,672
1인지식서비스조직 전문가 집단	12,656	12,864	14,271
1인지식서비스조직 예술가 집단	3,364	3,135	3,2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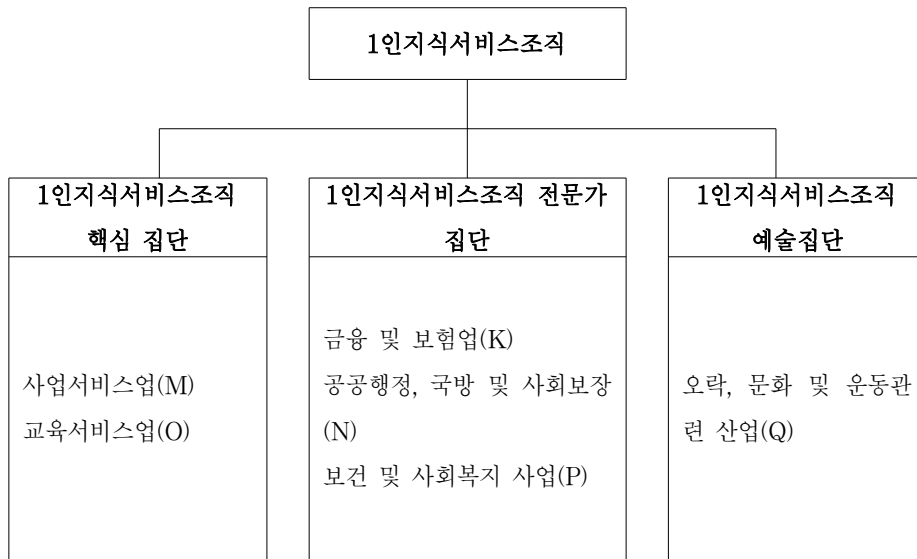


		빈 도		
		2006년	2007년	2008년
핵심 집단	사업서비스업	5,152	5,393	5,361
	교육서비스업	9,244	9,289	9,311
전문가 집단	금융 및 보험업	4,222	4,331	4,79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2,211	2,090	2,027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6,223	6,443	7,452
예술가 집단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3,364	3,135	3,207

## 【 부 록 2 】

1인지식서비스조직 코드





<그림 3-2> 측정수단

[표 3-5] 1인지식서비스조직 핵심집단 산업분류 코드

구분	직업군(통계청 산업분류 코드)
1인지식서비스조직 핵심집단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721);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722); 자료처리 및 컴퓨터시설 관리업(723);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724);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729); 자연과학 연구 개발업(731);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 개발업(732); 법무 및 회계관련 서비스업(741); 시장조사 및 경영상담업(742);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743);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44); 광고업(745); 전문 디자인업(746);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49); 사업시설 유지관리 및 고용 서비스업(751);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759); 초등 교육기관(801); 중등 교육기관(802); 고등 교육기관(803); 특수학교 및 외국인학교(804); 기타 교육기관(809)



1인지식서비스조직 핵심집단은 2007년 서울시 사업자 통계자료를 근거로 하였으며 컴퓨터 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721),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722), 자료처리 및 컴퓨터시설 관리업(723),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724), 자연과학 연구 개발업(731) 등의 종사자이며 1인 지식서비스 조직 핵심집단 지수는 서울시 인구에 대한 지역 1인 지식서비스 조직 핵심집단 종사자의 비중을 나눈 값이다.

[표 3-6> 1인지식서비스조직 전문가 집단 산업분류 코드

구분	직업군(통계청 산업분류 코드)
1인지식서비스 조직	통화 금융기관(651), 비통화 금융기관(659), 보험 및 연금업(66), 금융관련 서비스업(671),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672)
전문가집단	입법 및 일반 정부 행정(761), 사회 및 산업정책 행정(762), 외무 및 국방 행정(763), 사법 및 공공질서 행정(764), 사회보장 행정(765), 의료업(851), 수의업(852)

1인지식서비스조직 전문가집단은 2007년 서울시 사업자 통계자료를 근거로 하였으며 이 지수에 포함된 직업은 통화 금융기관(651), 비 통화 금융기관(659), 보험 및 연금업(660), 금융관련 서비스업(671),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672)등의 종사자이고 1인지식서비스조직 전문가집단은 서울시 인구에 대한 지역 1인지식서비스조직 전문가집단의 비중을 나눈 값이다.

구분	직업군(통계청 산업분류 코드)
1인지식서비스조직 예술가집단	영화 산업(871), 방송업(872), 공연산업(873) 뉴스 제공업(881), 도서관, 기록보존소, 박물관 및 기타 문화관련 산업(882), 경기 및 오락 스포츠업(883), 기타 오락관련 사업(889)

1인지식서비스조직 예술가 집단은 2007년 서울시 사업자 통계자료를 근거로 하였으며 이 지수에 포함된 직업은 영화 산업(871), 방송업(872), 공연 산업(873), 뉴스 제공업(881), 도서관, 기록보존소, 박물관 및 기타 문화관련 산업(882) 등의 종사자이다. 1인지식서비스조직 예술가 집단은 서울시 인구에 대한 지역 1인지식서비스조직 예술가 집단의 비중을 나눈 값이다.



## ABSTRACT

### An Empirical Study on the Factors that Contribute to Making a Successful One-Man Knowledge Service Organization

**Ko Kwang Jong**

**Major in Public Administration**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21st century territorial development is the point in securing One-Man Knowledge Service Organization(OKSO) in the area.

Purposes of this thesis are grasping actual distributed condition of One Person Knowledge Service Organization in Seoul City, checking the factors influencing it's distribution and considering influential effects on the territorial development.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there are statistically attentive relations between OKSO and territorial development. The core-group of OKSO has the most influence on the territorial development, and technical factor is the biggest influential thing on the distribution of OKSO followed Bohemian index, though, official index is not mindful statistically.

Therefore, in order to develop Seoul territory, it is essential to secure technical and cultural INFRA, and also needs political concern about fostering open atmosphere so as to lower entry barrier to foreigner and artist group.

**Key Word** : One Person Knowledge Service Organization(OKSO),  
Success Factor, Actual Proof Study